

발간등록번호

2023-KIHF-053

# 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강화 및

# 자녀진로지원 사업

# 우수사례집

# 2021-2022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포스코 1% 나눔재단



# 목차

Page 04

## 1. 사업 개요

Page 08

## 2. 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강화 및 자녀진로지원 사업 우수사례 선정작 - 서비스 이용자 부문

대상  
유하나 (곡성군가족센터)

최우수상  
나민준 (나주시가족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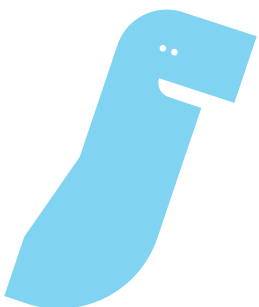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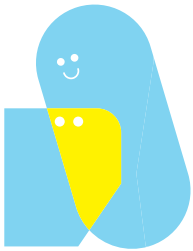
우수상  
백나라 (함평군가족센터)  
정지애 (강화군가족센터)

장려상  
추유미 (곡성군가족센터)  
왕상춘 (인천중구가족센터)  
원하영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박민서 (영덕군가족센터)  
왕평수에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향매 (울진군가족센터)

Page 30

## 3. 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강화 및 자녀진로지원 사업 대상 수상자 인터뷰

유하나 (곡성군가족센터)





Page 38

## 4. 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강화 및 자녀진로지원 사업 우수사례 선정작 - 사업수행기관 부문

최우수상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인숙

우수상

나주시가족센터 노무라 나오미

무안군가족센터 박미숙

장려상

계양구가족센터 김영주

화순군가족센터 김종식

Page 52

## 5. 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강화 및 자녀진로지원 사업 최우수 사업수행기관 인터뷰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인숙 담당자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맹임숙 팀장



Page 58

## 6. 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강화 및 자녀진로지원 사업 우수강사 기고

이지현 (검정고시 국어강사)

박마리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 강사)

이창선 (서울진로상담연구소 소장)

Page 68

## 7. 기관 소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포스코 1% 나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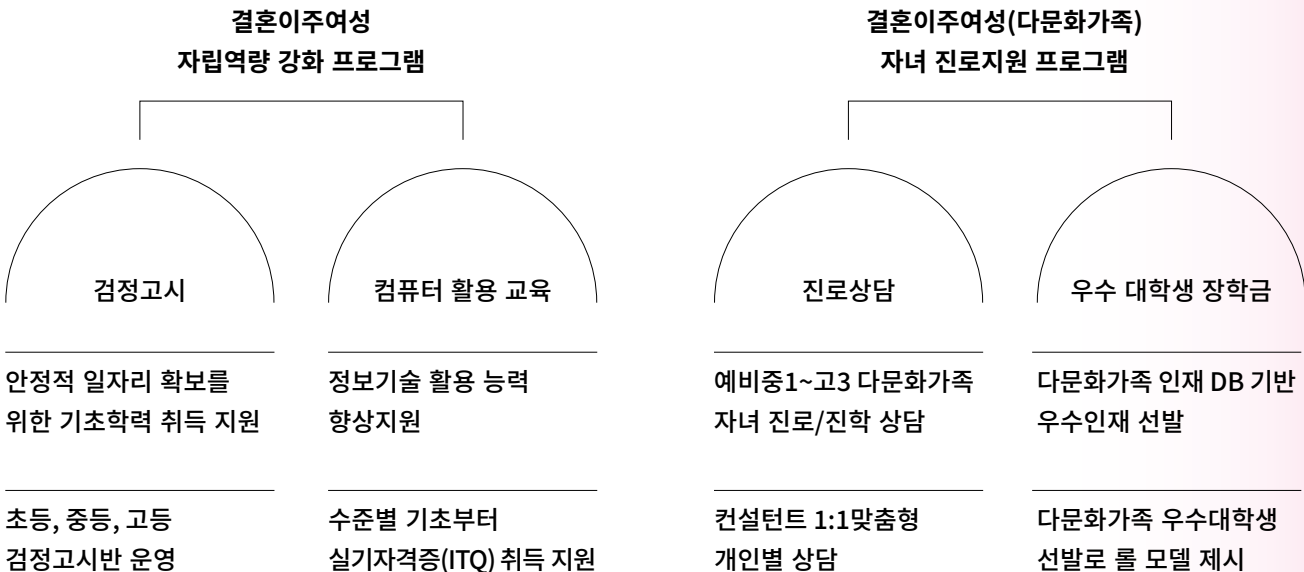
**사업명** —————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이 계속 증가해 감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점점 더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1%나눔재단,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고자 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취업에 필요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검정고시와 업무 능력 역량강화를 위한 컴퓨터 활용 교육을 중점으로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는 진로상담 및 장학금 등을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이들의 변화된 삶이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부여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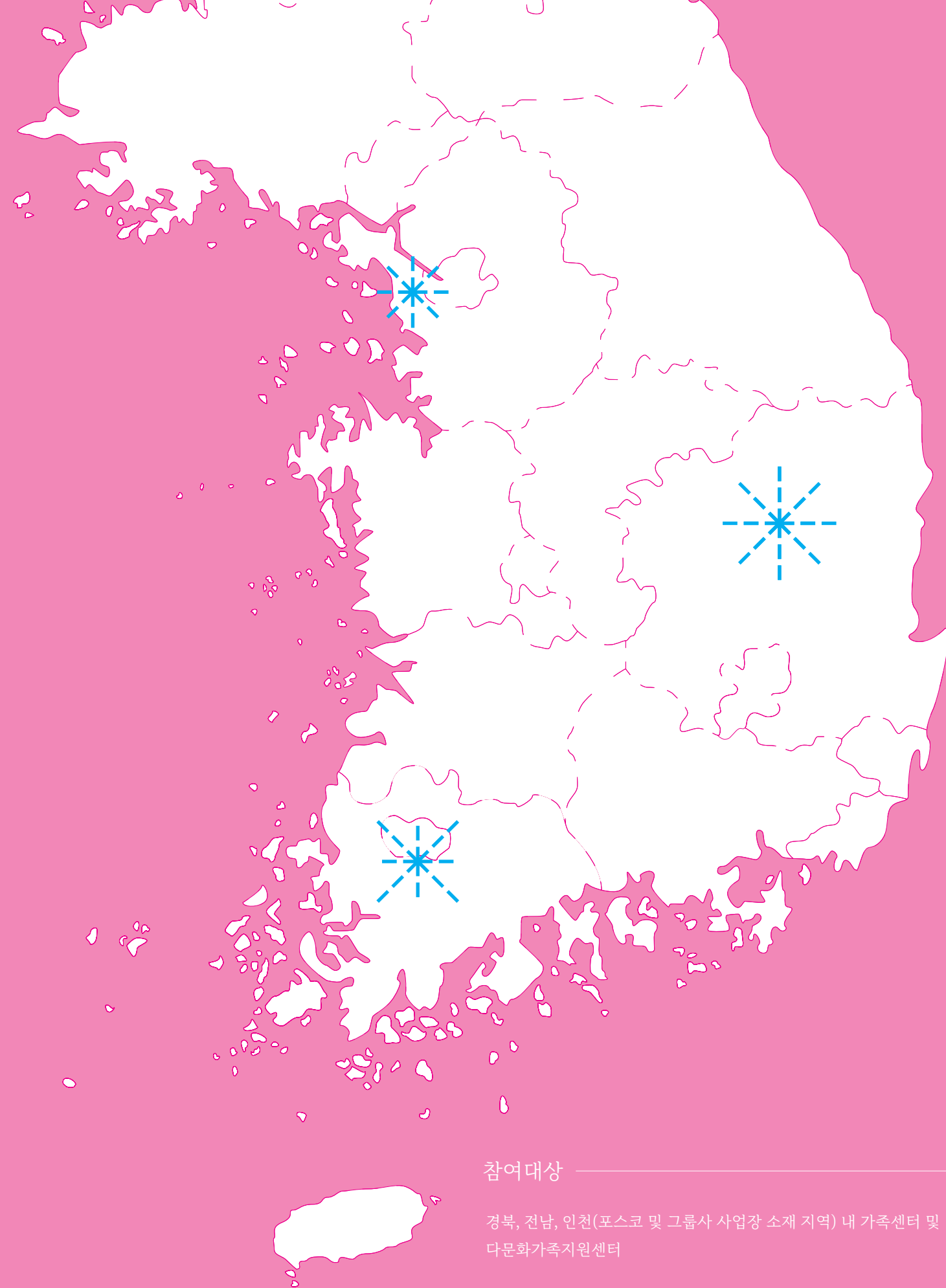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의 기초학습 및 정보기술 역량을 향상시켜 사회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포용적 사회문화 실현에 기여

다문화 청소년의 관심과 재능에 맞는 진로상담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촉진

다문화 우수대학생 발굴 및 장학금 지원을 통해 롤모델 형성

## 사업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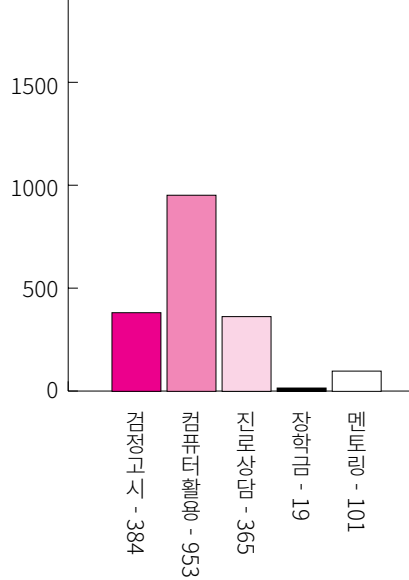
## 참여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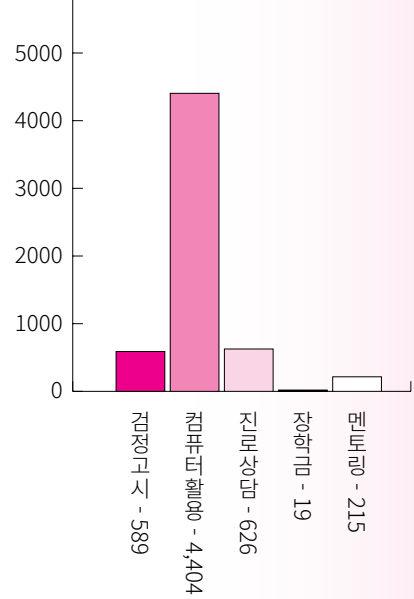
경북, 전남, 인천(포스코 및 그룹사 사업장 소재 지역) 내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021 1차년 사업 성과

참여자수\_실인원



누적참여자수\_연인원



91.1%  
검정고시 합격율

4.72점  
검정고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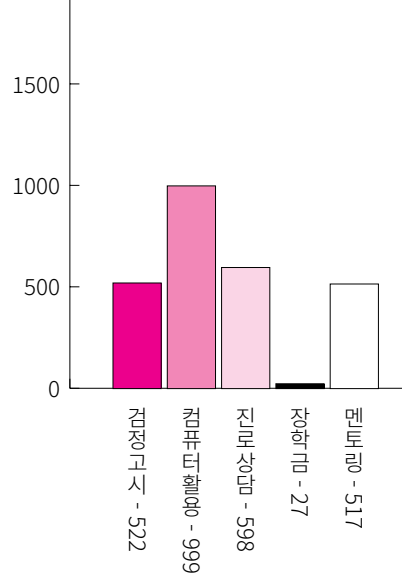
71.5%  
자격증 취득율

4.70점  
진로상담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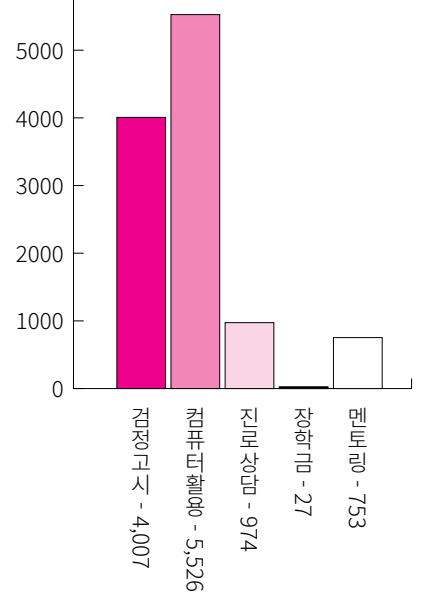
100%  
장학금

# 2022 2차년 사업성과

참여자수\_실인원



누적참여자수\_연인원



77%  
검정고시 합격율

4.77점  
검정고시 만족도

68.5%  
자격증 취득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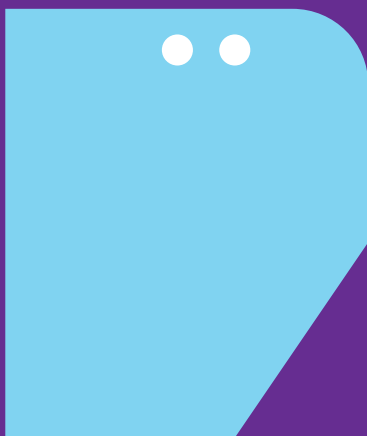
4.72점  
진로상담 만족도

100%  
장학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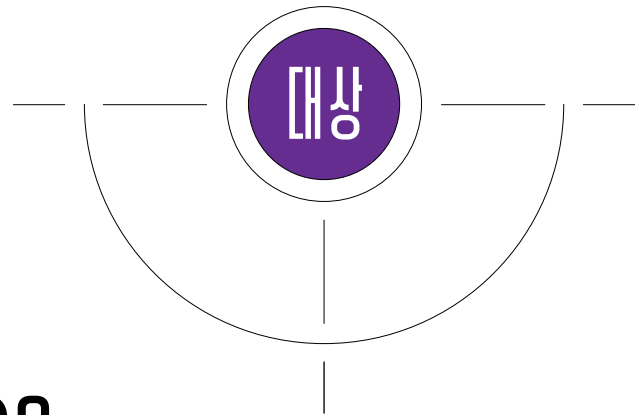
# 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강화 및 자녀진로지원 사업 우수사례

서정자  
연구원





# 당신의 미래는 어떤 색깔인가요?



유하나 (곡성군가족센터)  
참여프로그램 : 검정고시

남편을  
기다리며,  
아이를  
기다리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온 지 올해로 13년 되었습니다. 어느덧 초등학교 딸을 둔 학부모가 되었고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하면 시댁이랑 남편과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많이 울었던 기억부터 납니다. 아이가 생기니 괴로운 마음에도 기쁨이 있었지만, 남편이랑 말이 안 통하니까 더 답답하고 슬퍼졌습니다. 당시 남편은 아침 7시에 일을 나가 저녁 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점심때도 나가 보고, 저녁때도 나가 보고, 대문 앞에 서서 ‘우리 남편이 언제 오지?’ 하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 앉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외로운 마음을 참고, 눈물을 닦고……. 빨리 아기를 낳고 집을 떠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아기가 태어나니, 힘들고 외로운 마음이 정말 싹 사라지더군요. 아기 얼굴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습니다.

아기를 낳은 후부터 남편도 집에 빨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와 같이 밥 먹고 아이를 돌보고. 그러면서 저도 한국말을 조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를 많이 도와주신 가족센터 선생님이 있습니다. 매주 두 번씩 집에 찾아오셔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고, 힘들고 아플 때 옆에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너무도 감사한 분이예요.

## 어릴 적 내 꿈은 뭐였지?

지금껏 아이를 키우며 여러 가지 일을 하였지만, 사실 그동안 제 꿈과 희망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생활을 위해 일만 하다 보니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중 곡성군가족센터에서 초등 검정고시 프로그램이 있으니 같이 해 보지 않겠느냐고 연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 과연 학교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친구들 중에서도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너무 부럽더군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간호사를 꿈꾸던 어린 시절이 생각났고, 그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조무사가 되어 보기로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아이도 키우면서 공부까지 하려면 정말 힘들 것 같았지만, 미래의 삶을 위해서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은 오랫동안 저와 같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검정고시를 지도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친구들과 영어, 수학, 사회 같은 과목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학생처럼 집에 와서 숙제를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공부하는 날은 마음이 정말 설렸습니다. 행복한 꿈을 안고 수업을 받으러 갔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면 나의 자리가 있고, 옆자리에는 베트남 언니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설레고 무언가를 열심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 후로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정고시를 공부하려 가는 날은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이었으며, 나 자신의 밝은 미래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 내 미래를 칠하는 색깔이 달라졌어요

선생님들의 좋은 가르침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했고, 드디어 초등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베트남에서 공부를 많이 못해서 엄마로서 아이에게 자신이 없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합격을 하고 나니 이제 아이에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이 교과서에 제가 공부했던 내용이 있어서 설명을 해 주기도 합니다. 전에는 학교 공부에 대해서 아이와 할 말이 거의 없었는데, 아이와 공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이가 먼저 저에게 묻기도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공부하지 못했던 영어, 수학에 불안감이 있었지만 공부를 계속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가 생깁니다. 사회를 공부하면서는 제가 13년 동안 한국 생활을 하면서 몰랐던 점, 궁금했던 점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공부를 하는 중에 우리들이 잘 모르는 한국의 예의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셨는데, 우리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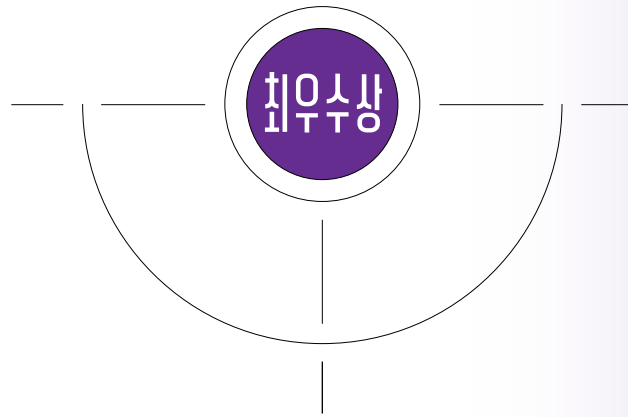
검정고시 이전에 저의 생활은 그냥 아이 엄마이자 아내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검정고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저에 대해서 자주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제가 더 젊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저의 미래가 캄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밝은 미래를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 매일매일 나 자신을 격려합니다

저는 지금 중등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등 검정고시를 마치면 대학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하자마자 곡성군가족센터의 다문화이해강사 채용에 응시하였는데 면접을 통과하여 현재 곡성군가족센터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다문화이해 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직장에서 제 역할을 톡바로 하기 위해서라도 고등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에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 자신을 매일 격려합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도 강하게 살면 언젠가 강하게 되고 또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라고, 꿈을 이룰 거라고 믿습니다.

# 멘토링이란 천천히, 최선을 다해 나의 시간을 주는 일



나민준 (나주시가족센터)  
참여프로그램 : 장학금

## 내가 지나온 길, 아이들이 거쳐야 할 길

2022년, 나주시가족센터에서 주관하는 우수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과 멘토링 활동에 멘토로서 참여했습니다. 처음 멘토로서 활동할 수 있겠냐는 권유를 받았을 때,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기관에서 주관하는 다른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하여 2년 정도 활동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경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고민도 깊었지만, 결론은 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관점으로 보는 세상과 아이들의 관점으로 보는 세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겨우 몇 년이지만, 아이들에게 그동안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시행착오가 참 많았습니다. 고민되는 순간이 정말 많았지만, 그 고민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스스로 결정해 버리고는 했습니다. 분명히 더 나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당시의 저로서는 올바른 선택지를 고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며 저와 같은 고민에 빠지게 될 때 스스로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고 싶었습니다. 같은 다문화가정 2세로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청나게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사소한 어려움이 저를 조금씩,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제가 만나게 될 아이들도 분명히 저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겠지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공감해 주는 사람,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 주기로 했습니다.

## 다가가기, 공감하기, 이야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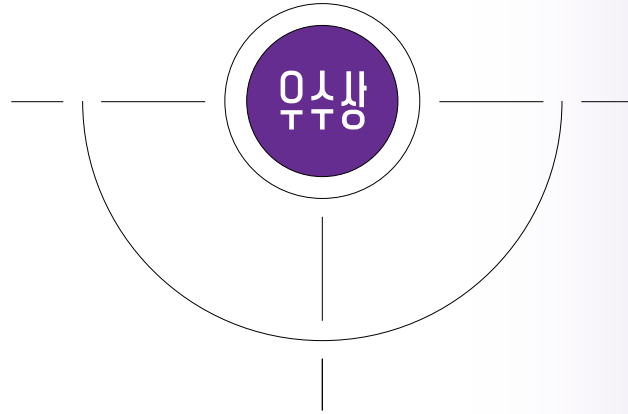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말하면,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기를 정말 잘 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게 어려웠습니다. 대학생 형을 만난다는 점부터가 아이들에게는 부담이었겠지요. 조금씩, 천천히, 최선을 다해 다가갔습니다. 초반에는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일들을 알아보면서 아이들에게 공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이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니 금세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친밀해지자 학교나 다른 사회생활에서 어려운 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배우는 것, 좋아하는 과목, 앞으로 배워 보고 싶은 것이 있는지, 그게 어떤 것인지, 조금씩 이야기를 넓혀 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어떤 생각을 했었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는데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선택한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아이들이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저는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4학년이라 이제 곧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전기차, 무인차는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야 하는 기술이고, 저는 이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택한 진로, 산업 이야기를 하니 아이들이 큰 관심을 보이더군요. 자기도 그런 일을 해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후에는 간간이 문화 체험과, 진로 체험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를 보고 느낀 생각이나 재밌었던 장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잡월드에서 가서 직업 체험을 해 보고, 대학교 캠퍼스 투어도 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즐거운 시간을 선물해 줄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 멘토의 의지, 자신감, 책임감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도 당연히 많았습니다. 대학생의 관점으로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 맞춰 아이들을 만나는 일과 학교생활을 병행하는 것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결론은 멘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다짐했던 것을 잊지 않는 것, 그때의 다짐을 다잡고 아이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멘토링의 마지막을 행복한 기억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멘토링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낍니다. 당연히 저에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리더십, 자신감,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권유를 받고 수락한 순간, 저에게는 이 아이들과 프로그램 끝까지 같이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어려운 점이야 말할 수 없이 많았지만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참여하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앞으로 제 삶의 초석이 되는 귀한 경험이었고 참여하게 해 주신 분들, 도움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일단은 진로부터, 결과는 차근차근



백나라 (함평군가족센터)  
참여프로그램 : 진로지원

## 몸으로 부딪치고 보는 건 이제 그만

저는 고등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단 진학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공부는 꾸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학원을 다녀볼까 했지만 학원 수업 방식이 저와 맞지 않았어요. 그저 막막한 채로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하기보다 먼저 명확한 진로를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달 간의 긴 겨울방학 동안 뭘 해야 내 미래에 도움이 되는 걸까? 어떻게 해야 자기계발이 되는 걸까? 주변에 도움 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기댈 데라고는 오직 인터넷뿐이었어요. 여러 매체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진로를 정해야 동아리, 생활기록부 등 여러 방면에서 수월할 것 같았는데, 딱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 저에게 겨울방학은 너무 길고 지루하고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나를 이끌어 주는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녀인 제가 항상 정보 없이 몸으로 부딪치고 나서 제 경험을 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했지요. 그래서 더더욱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만큼은 저 혼자 몸으로 직접 부딪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실질적이고 필요한 조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진로 고민을 같이 해 줄 사람, 실질적인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어른이 간절했습니다.

## 나 카메라 좋아했네!

가족센터에서 진로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유일한 정보 출처인 인터넷으로요. 그리고 드디어 이곳에서 제 진로 찾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멘토 선생님은 진로 고민이 많은 저를 옆에서 끊임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선택과목의 개념과 등급이 어떻게 나뉘는지, 고입을 앞두고 필요한 정보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셨고, 대학 학과 정보 자료를 보여주시며 입시와 관련된 저의 질문들을 척척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멘토 선생님과 저의 적성과 취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저는 제가 평소 카메라에 관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제가 흥미 있는 분야를 인식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진로 방향성을 계획해 나갔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필름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동아리 선택에 갈등하는 친구들을 보면 멘토 선생님이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지요. 제 관심사와 비슷한 선배들과 팀을 꾸려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연출과 카메라 감독을 맡아 <어린왕자>라는 단편영화를 제작했고, 학교 동아리회에서 상영했습니다. 두고두고 기억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진로를 정한 덕분에 차근차근 결과물을 쌓아 갈 수 있다는 게 멋지고 뿌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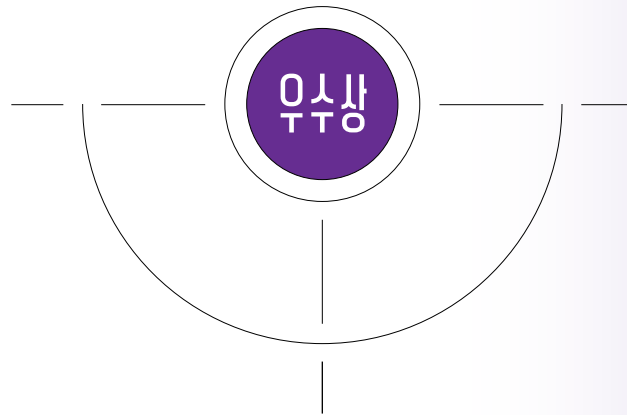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제 진로에 대해 점점 확신과 자신감이 생겼고, 잘하고 싶은 욕심이 커졌습니다. 덕분에 교장선생님 추천을 받아 소수 정예로 KBS 방송국 체험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PD가 되면 근무할지도 모를 현장을 직접 보고, 현직 PD 선배님들, 아니 선생님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러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도 얻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학교 진학 관련 정보로, 방송 관련 일을 하려면 학업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이었지요.

## 욕심이 큰 만큼 노력은 도전적으로

멘토 선생님께서는 진로 외에 학습 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과목별 공부 방법과 인터넷 강의, 저에게 맞는 문제집을 추천해 주셨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과 자습 시간 등 개인적인 공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로에 대한 막연함과 불안함을 멘토링 프로그램을 거치며 확신과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를 결심하고, 진행 기간 동안 꾸준히 참여한 제 자신이 기특하게 느껴집니다. 저 자신에 대한 애정도가 높아지고, 도전 정신도 충만해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던 제가 이제 더 큰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진로를 고민하며 불안해하고 있을 고입, 대입 수험생들이 꼭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언을 얻는다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어른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제 목표는 예능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 연출 연습, 촬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을 ‘느낀 점 노트’에 기록하며 생각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도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전적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 다시 소녀가 되어 꿈을 꾸입니다



정지애 (강화군가족센터)

참여프로그램 : 검정고시

## 다시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화군에서 사는 결혼이주여성 정지애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온 저는 14년이 되었고, 남편, 중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매일 식구들 식사를 챙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들한테 잔소리하는 엄마였습니다. 꿈도 없었고 인생이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강화군가족센터에서 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했고,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가족센터 선생님께서 검정고시 수업이 있다는 걸 알려 주시며 참석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사실 검정고시 수업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옛날 추억이 떠오르더군요. 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어 남동생 대학 학비를 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장녀였거든요. 그게 제 마음에 항상 슬픈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참 많이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검정고시 수업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설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제가 하기에 따라 대학에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꿈이 생겼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다시는 저처럼 돈이 없어서 공부를 그만두어야 하는 사람이 없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 자랑스러운 엄마, 단단해지는 정체성

다행히 초등학교 수업부터 시작하는 거라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제일 어려운 두 과목은 과학과 사회입니다. 사회에서는 역사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저는 한국 역사를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사극 드라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유튜브에서 한국 역사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년 8월에 시험을 보았습니다. 설렘과 긴장된 마음으로 시험을 보았고, 평균 점수 97.5, 믿기지 않게도 사회가 100점이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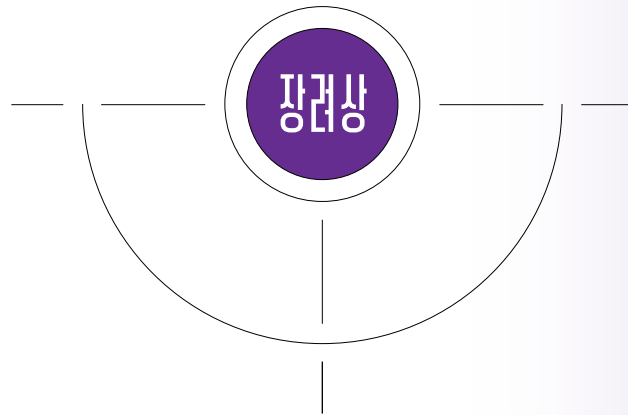
참 신기한 것은 그 이후부터 저는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넘쳤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소녀로 되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아들도 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들은 “엄마 이제 잔소리해도 돼.” 하고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처럼 100점 받을 수 있게 자기도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합니다.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란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저의 정체성이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저를 한층 더 성숙하게 합니다.

## 가족센터는 제가 꿈꾸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역시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강화군가족센터에서 중등 검정고시반을 개설해 주셔서 여전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올해 1차 시험 응시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고, 중등 검정고시가 끝나면 바로 고등 검정고시를 목표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 사이 강화군가족센터 컴퓨터 활용 능력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이중언어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제 꿈에 한 걸음 다가선 듯합니다. 대학에 가게 되면 영어를 전공해 보려 합니다. 제 모국어를 활용하여 영어, 중국어 이중언어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매번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가족센터는 저에게 다양한 기회를 줍니다. 이게 제가 꿈꾸는 원동력입니다. 강화군가족센터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소녀로 되돌아가게 해 주셔서, 꿈을 꾸게 해 주셔서, 공부를 통해서 제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셔서!

# 고비는 OTL 나를 위로하는 시간



추유미 (곡성군가족센터)  
참여프로그램 : 검정고시

## 시야는 멀리, 시작은 단계별로

제가 검정고시 공부를 하게 된 이유라면, 일단 제 자녀들을 위해서라고 해야겠네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고 제가 집에서 직접 숙제나 학습 등을 봐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학년부터 아이들 학습이 점점 어려워지더니 제가 더 이상 봐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더군요. 너무나 답답하고 슬펐습니다. 저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한 집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분위기에 끼어들지 못하는 것이 서럽고 외로웠습니다. 한국 생활 초기에 저는 공장에서 하루 종일 대화도 거의 하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서툴렀고 발음도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깨달은 점은 '아! 공부를 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센터 선생님께 당장 쉽게 하는 일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멀리 보고 준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캄보디아에서는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한국 교육 제도에 맞게 단계별로 공부해서 전문직에서 일해 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시작이 초등 검정고시 과정이었습니다.

## 검정고시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일상

마침내 작년 곡성군가족센터에서 다문화여성들을 위한 아주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셨습니다. 초등 검정고시반 공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고, 삶에 또 다른 의미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들은 저희를 정말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습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정보에서부터 사회생활을 넘어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고민도 해 보았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종일 힘들게 일하고 저녁에 검정고시 공부를 하였으나 그 시간은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저만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정과 직장밖에 없던 제가 교과서를 펴고 공부를 하니 아이들도 제 모습에 의아해했습니다. 아이들 공부에 관여도 하고 아이들이 나누는 대화에도 관심을 보이자 이제는 아이들도 공부하는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남편은 제 공부를 적극적으로 응원해 줍니다. 제가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하며 우리 가족은 대화도 더 많아졌고 집안 분위기도 더 유쾌해졌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 또한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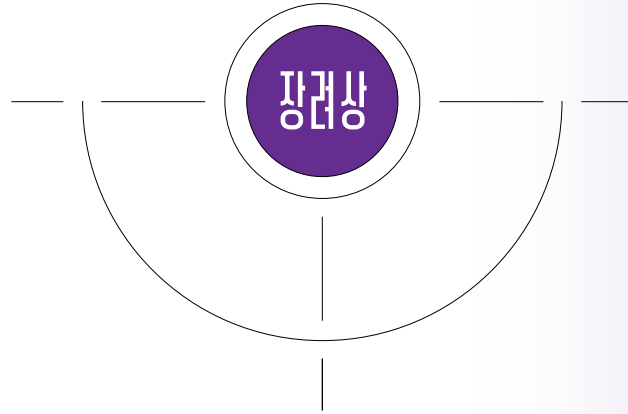
## 다문화 이해강사를 준비하며

예전에는 한 번도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제게 목표가 생겼습니다. 2023년에는 중등 검정고시 반을 졸업하고, 2024년에는 고등 검정고시 반을 졸업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도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대학교 진학입니다. 공부를 시작했더니 길이 보이고 용기가 생깁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해 보려 합니다.

2023년 곡성군가족센터에서 다문화이해강사 채용공고가 나서 용기를 내어 지원해 보았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채용 면접을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문화강사 양성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육을 받고나서 학교나 어린이집, 아동센터에서 캄보디아의 역사, 문화, 생활, 삶에 대해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직도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이 많습니다. 다문화강사 양성 과정을 마치면 지역민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강사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싶습니다. 검정고시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검정고시 시작과 함께 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곡성은 작은 지역 사회라서 결혼이주여성들끼리 서로 잘 알고 지냅니다. 몇 년 전에 고등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대학에 간 친구가 있어 무척 부러웠는데, 제가 초등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하니 캄보디아에서 온 동생들이 검정고시 공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물어 보기도 합니다.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이끌어 주고 격려하면서 행복한 한국 생활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 공부야말로 아이와의 접점



왕상춘 (인천중구가족센터)  
참여프로그램 : 검정고시

## 낯선 한국 땅에서 혼자가 되어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온 한국 생활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어 강사로 일하면서 만 45세에 아이를 낳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지만 결국 남편은 제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이에게도 이런 가정환경이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아이와 단둘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고, 중국어 강사로 취직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기에 부족한 한국어를 더 배울 시간도, 기회도 없었고, 그런 여유는 저에게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제 처지 때문에 아이의 교육 수준이 한국인 부모들에게서 자라는 아이들과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서툰 한국어 실력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가정통신문 때문입니다. 낯선 단어들과 보호자 서명란이 저에게는 너무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걸 왜 서명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아이에게 ‘가정통신문을 받으면 네가 먼저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엄마한테 어떻게 설명하면 되는지 선생님께 물어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학교에서 주는 자료들을 엄마보다 먼저 꼼꼼하게 읽어 보고 챙겨야 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자 수학 점수가 너무 떨어졌고 ‘어떻게 도와줘야 하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저에게 두려움 하나가 더 생긴 것입니다. 공부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이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알아보다가 인천광역시 중구가족센터에서 초등 검정고시 수업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현실의 벽 앞에 체념하지 않고

중국에서 대학교까지 나왔지만, 한국 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정말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한국어와 차이가 너무 커서 수업을 따라가는 데 힘이 들어 몇 번이나 포기하려 했습니다. 강사 선생님께서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작정 열심히 수업을 들어보라 하셨고, 수업을 듣고 또 들으니 단어들이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수업 내용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접수하려고 하자 합격할 자신이 없어서 무척 망설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설득으로 마지막 날에야 겨우 접수하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지에서 아는 문제들이 눈에 보이자 정말 기뻐했습니다. 불합격일 줄 알았던 초졸 검정고시에 합격하였고, 중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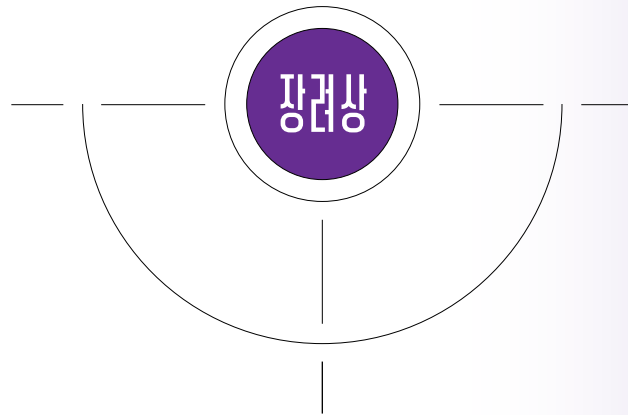
이제는 아이와 함께 앉아서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아이도 존경하고 응원해 줍니다. 저와 아이를 위한 공부였지만 가족센터에서 노트북까지 지원해 주신 덕에 저희 가정에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와 공부라는 주제로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수학, 역사 등을 공부하다 보니 아이의 성적까지 좋아졌습니다. 성적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도 좋아지면서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도전하여 합격하였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현실 앞에서 체념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걸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런 모습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나 봅니다. 이제 아이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 중국어 교사를 꿈꾸다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평범한 가정은 아니지만 부족한 점을 충분히 채워주고 있다는 자신감을 느낍니다. 합격을 통한 성취감을 바탕으로 이제 또 다른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까지 마치고 나면 사이버대학교에 들어가서 중국어를 전문적으로 배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같은 교육 기관에서 교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생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국어를 배우고 싶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배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원하영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여프로그램 : 컴퓨터

## 멋진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과 농사를 옆에서 도와주며 자녀 두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고 싶었지만 아이를 돌보느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컴퓨터를 배워 보려고 했습니다. 컴퓨터를 배워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었습니다. 때마침 다문화센터에서 보내온 프로그램 안내장을 보고 컴퓨터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수업을 끝까지 마치고 우리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멋진 엄마가 되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을 따라 가는 게 정말 어려웠지만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니 재미도 있고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컴퓨터 용어에 서툴러서 힘들었지만,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메모하고, 모르는 것은 다음날 선생님께 물어 보고,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며 한 과목 한 과목 해결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지만 조금씩 속도가 붙자 자신감을 가지고 자격증 시험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인생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 스마트스토어를 열다

컴퓨터 교육을 마치고 대한민국 국가공인자격증 ITQ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인터넷, 포토샵 시험에 응시해 자격증 5개를 취득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냥 자격증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걸음 다가설 수 있었던 소중한 자격증입니다.

남편도 저를 자랑스러워하고 아이들에게도 제가 배운 것들을 가르쳐 주며 함께 놀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바라던 멋진 엄마가 된 것 같아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직접 농사 지은 맛있는 사과를 전국에 판매하고 싶어서 스마트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글을 어떻게 올려야 할지, 사진을 어떻게 편집해야 할지 많이 서툴렀지만,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 보고, 그 전에 배운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포토샵 등을 활용해서 사진을 편집하고 예쁘게 꾸며서 작은 스마트스토어를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사과 농사를 짓고, 저는 온라인으로 홍보하며 사과 판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가족센터에서 컴퓨터 교육 보조강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일일 수 있지만 저에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사회인으로 한 발자국 나아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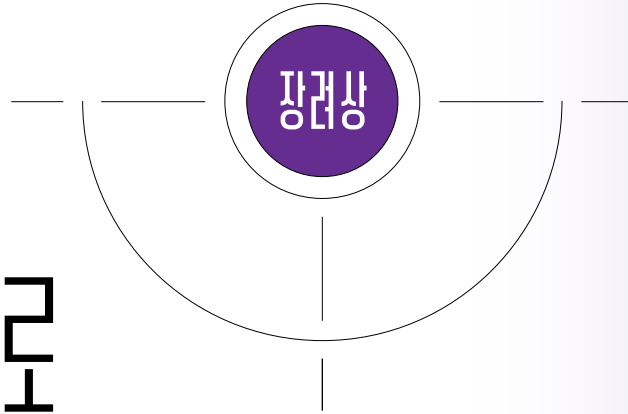
## 첫 이력서를 작성하다

어느 날 가족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노인복지관에서 컴퓨터 강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처음 작성해 보는 이력서에 자격증을 세 개나 쓸 수 있어 부듯했습니다. 원서 접수를 하면 바로 컴퓨터 강사가 될 줄 알았는데, 면접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자신 있게 대답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도 취직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아이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쉽게 가르칠 수 있을지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컴퓨터 공부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아닐까요? 저도 한국인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서 신도 나고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나로 발전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프로그램처럼 농사를 짓는 우리를 위해 농한기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는 다문화센터 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박민서 (영덕군가족센터)  
참여프로그램 : 장학금

## 노력한다는 건 꿈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는 것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입시에 관해 문외한이었습니다. 입시를 준비해야 할 때가 다가오자 점점 마음이 초조해졌고 결국 직업 전망이 좋고 성적에 맞는 간호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의학에는 그렇게 관심이 가지 않아서 학과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재미는 있더군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때 만약 미래를 더 고민했다면 지금보다 더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가족센터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게 어떠냐고 물으셨고, 저는 '그래! 이거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고3 때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면접이라 많이 긴장되었지만 제 멘토였던 언니의 응원과 면접에 관한 조언을 듣고 긴장을 덜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마친 면접이 합격까지 이어졌으니 첫 면접이 제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멘토로서 멘티가 자신이 원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도움을 줄 차례였습니다. 지금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불안해하지 말고 자신의 꿈에 한 발자국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설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 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다

멘토링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은 멘티의 시험입니다. 제 경험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어 멘티의 수준에 맞게 문제집을 추천해 주었고, 시험공부 팁도 알려주었습니다. 시험을 마친 멘티의 말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언니! 나 영어, 역사, 사회 20점 올랐어!" 이 한마디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딪힘이 차올랐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멘티의 성적이 많이 안 좋아 걱정이 컸습니다. 지금까지 멘티를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성장한 멘티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멘티 스스로도 자신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더 노력하는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상담도 기억에 남습니다. 멘티가 아직 해당 고등학교의 기숙사 여부나 선발 조건, 선발 과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하나하나 찾아 알려주며 멘티의 현실적 문제들을 고려하여 진중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멘티도 잘 경청하며 고마워했지만, 그런 멘티를 보며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 컴퓨터 계열에 대해 더 잘 알았다면 더 유익한 조언을 해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컴퓨터 계열은 제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분야일 뿐더러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조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정보를 모으고 그것들을 총동원해서 멘티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력의 시간이 책임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중3이라는 중요한 시기, 꿈을 이루고 싶다는 열정 가득한 한 아이의 소망을 더욱 단단하게 잡아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중요한 순간을 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 새로운 경험이자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 부디 멘토링을 진행하며 나눈 대화들이 멘티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신의 진로를 향해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된 지 고작 1년밖에 안 됐지만 멘토링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수많은 일들이 먼 미래에 저를 강인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해 줄 거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신 가족센터 선생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확실한 목표, 불타는 열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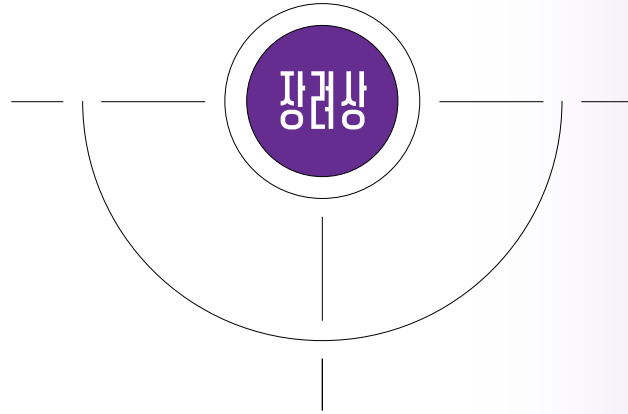
멘토링을 하며 누군가에게 제가 아는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는 것에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을 하고 나서 상대가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때 정말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간호 계열 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철학의 거장 나폴레옹 힐(Napoleon Hi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지녀야 할 자질이 있는데, 명확한 목표, 목표에 대한 지식, 성취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이다.”

이제 목표를 정했으니 열정을 다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저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은 학점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 현재 수강하고 있는 과목들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실습하며 의학과 간호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분명 학생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교수가 되어 있겠지요.

이번 프로그램은 제 인생에 새로운 목표를 제공해 준 전환점이자 목표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목표를 착실하게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저의 변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멘토링은 제 삶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고, 이 바람을 타고 더 넓은 세상으로 자신감 있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꿈을 향한 여정의 끝에서 활짝 웃음 짓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 천운이 아니라 노력이 진정한 성취를 결정한다



왕평수에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여프로그램 : 컴퓨터

## 지금 시대에 맞는 기술을 배우다

한국에 산 지 5년 만에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유치원에 갈 때쯤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이라도 일자리를 구해 가계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학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취직이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일을 하려면 기술을 배워야겠지요. 한 가지 재주도 없다면 맹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는 돈을 많이 모으지도 못할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저의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요즘 인기 있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다문화센터에서 컴퓨터교육을 한다는 홍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학 기술과 인터넷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게 우리 생활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생활 방식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어디에서 일하든 컴퓨터는 다룰 줄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무 소프트웨어를 능숙하게 조작하려면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타이핑부터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것까지 기본적인 컴퓨터 조작조차 할 수 없다면 안정된 직업을 찾는 건 불가능하겠지요. 생활의 모든 면에서 높은 수준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컴퓨터를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 세심한 배려, 끈기 있는 설명

다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컴퓨터 수업에 참여하기 전까지 저는 컴퓨터로 간단한 타이핑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 제가 3개월 남짓 공부해서 ITO 한글, 파워포인트, 포토샵, 자격증을 3개나 취득했습니다. 외국인이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시간 나는 대로 공부하고 정말 많이 연습했습니다.

## 자격증 취득과 쇼핑몰 창업

수업시간 외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매일 다문화센터로 달려가 공부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수업에 가야 할 때가 많았는데, 다른 분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다문화센터에서 아이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간식과 맛있는 햄버거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 모든 배려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가족처럼 우리를 무조건 지지해 주고 도와주셨습니다.

컴퓨터 조작에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는 겁먹고 당황했고, 심지어 멀리하고 싶었는데, 선생님들이 세심하고 끈기 있게 설명해 주신 덕분에 조금씩, 조금씩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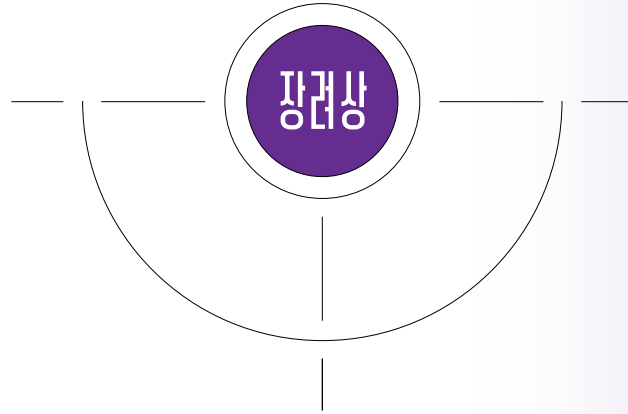
한국에 와서 한국어 교육, 취업 교육, 사회통합 교육 등 여러 수업을 들었지만 컴퓨터 수업처럼 먹고 자는 일을 잊으면서까지 열심히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연습을 더 많이 하기 위해 점심식사를 거른 적도 있습니다. 매일 다문화센터를 찾아가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면 물어보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아보고, 심지어 공책도 따로 준비해서 모르는 것을 모두 기록해 두었다가 모국어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는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컴퓨터 수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친구들이 ITQ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포토샵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시험을 보았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하기에 합격도 많이 하고 좋은 성적으로 A를 받는 사람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잘 해냈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마친 후 중국산 홈 장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했습니다. 컴퓨터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감히 해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이트 운영은 창업 과정보다 더 어렵겠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노력해서 성공과 가장 가까운 곳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이런 좋은 학습 기회를 주신 다문화센터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의 도움과 지원이 없었다면 순조롭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창업까지 하는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차가 없는 저를 위해 시험장까지 인솔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나 곁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이번 학습과 도전을 통해 미래와 직면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그동안 배운 공부가 삶의 방향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성취를 진정으로 결정하는 것은 천운이 아닌 엄격한 관리와 강도 높은 노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비밀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명확하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다면 미래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분명 훌륭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식을 쌓고 저 자신을 다듬어서 사회에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문화센터 선생들과 가족들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양향매 (울진군가족센터)  
참여프로그램 : 컴퓨터

## 현실의 높은 벽, 컴퓨터 울렁증

저는 울진에 살고 있는 중국 출신 양향매라고 합니다. 2002년 한국에 와서 20년 넘게 한국에 살고 있지만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니다.

한국에서는 자격증이 있거나 대학교를 졸업해야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에 들어가 중국어를 전공했지만 그걸로도 부족하였습니다. 회사 사무직에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 컴퓨터 활용이 필수였습니다. 중국에서도 직장 생활을 했던 터라 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컴퓨터는 제게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컴퓨터를 몰라도 너무 모르니 컴퓨터만 보면 울렁증이 생겼습니다. 컴퓨터가 다른 자격증보다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였는데, PPT 교육 자료를 직접 만들 수 있어야 했고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메일로 주고받는 게 기본이었기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가족센터 컴퓨터 교육 포스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컴퓨터를 배우는 건 힘들 수도 있겠다, 잘 하든 못 하든 한번 해 보자.

## 용기를 내어 얻은 것들

이번 컴퓨터 수업에서 크게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용기입니다. 컴퓨터를 배우고 싶었지만 한국인들과 같이 학습할 기회가 와도 포기하고 말았던 것은 자신감이 부족해서였습니다. 이번에 가족센터에서 개강한 수업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과정이라서 강사님께서 학습자 수준에 맞춰서 천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덕분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공부하는 다문화 친구들과의 관계입니다. 평소에는 다문화 친구들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도 서로 잘 모르고 지냈는데 컴퓨터 공부를 하면서 같은 나라에서 온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열정 있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좋은 영향을 받았고,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관계도 더 가까워지고 그야말로 일석이조였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진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격증의 중요성을 항상 느꼈습니다. 나름 열심히 노력하면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공예 등의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컴퓨터 올링증 때문에 컴퓨터 관련 자격증에는 도전할 용기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컴퓨터 올링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ITQ 한글, 파워포인트 자격시험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 다문화이해 강사를 위한 도전

그렇게 두려워하던 컴퓨터를 공부하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까지 받게 되자 자신감이 한 단계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옛말이 저절로 생각날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후원해 주신 여러 프로그램 덕분에 우리 올진에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에도 한글과 엑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에 도전하겠습니다. 실력을 한층 높여서 올진 지역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문화이해강사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중국에 대해 올바르게 알려주고 차별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편견 없이 다문화가족을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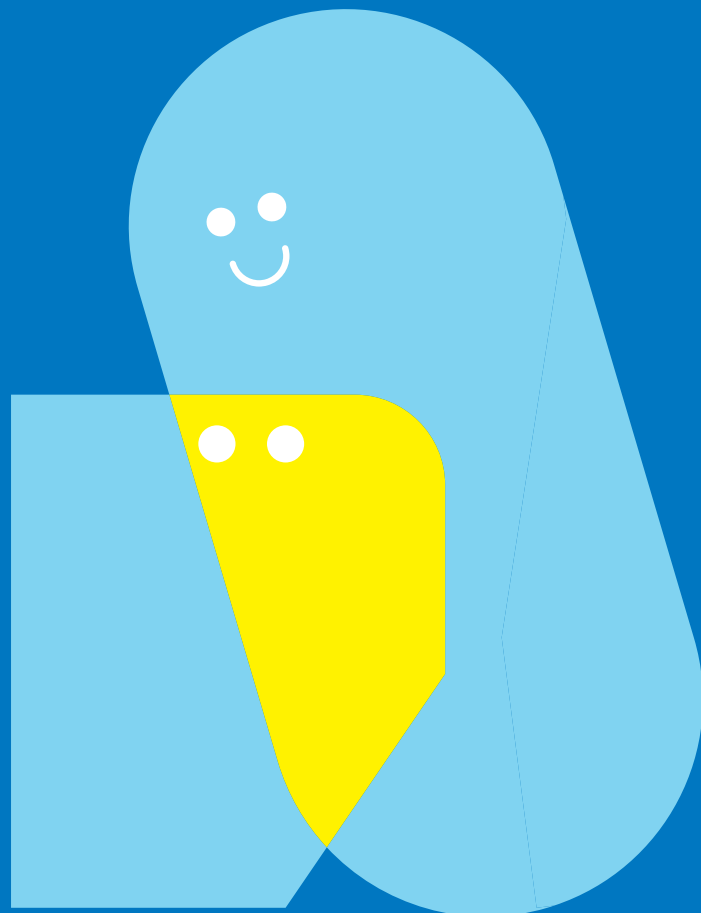
# 3.

## 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강화 및

## 자녀진로지원 사업

## 대상 수상자

유하나 (곡성군가족센터)





Q. .... 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강화 및 자녀진로지원 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서비스이용자 부문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호치민 근처에서 살다 한국으로 결혼이주해 온 유하나라고 합니다.

Q. ....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올해로 13년이 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네요.

Q. .... 결혼과 동시에 이민을 오신 거라 적응하기 힘들셨지요?

아무래도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가족이랑 의사소통하기도 힘들고, 온 지 얼마 안 되어 임신도 했어요. 힘든 일이 생기면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 외롭기도 했어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Q. .... 한국어는 어떻게 배우셨나요?

한국에 온 후 출산까지 2년 정도 집에 있었는데요, 여기 곡성군가족센터에서 한국어 선생님이 집으로 방문해 주셔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결혼 초기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방문교육 시스템이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언어를 가르쳐 주시는 건 물론, 제 힘든 점을 잘 이해하고 도와주셨어요. 그때 한국생활과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지금도 그 선생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Q. .... 베트남 이름은 ‘응엔 티 풍(Nguyễn Thị phụng)’이시지요? 한국 이름 ‘유하나’는 어떻게 지으셨나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개명을 할 수 있어요. 은행이나 병원에 가서 베트남 이름을 말하면 듣는 분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표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좋은 이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유’는 힘들고 아파도 가족과 아이를 위해 내 마음을 항상 지금처럼 유지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는 앞으로도 줄곧 ‘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자 하는 의미로 지었어요.



Q. …… 한국에 오신 후 가장 부듯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초등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합격했을 때 정말 기뻐요. 우선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데서 잊고 지냈던 꿈과 희망이 되살아났어요. 공부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초등 검정고시에 합격했는데, 그때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자신감을 찾았어요. 무척 행복했어요.

Q. …… 초등 검정고시 준비는 어떤 계기로 하신 건가요?

곡성군가족센터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검정고시를 준비해 보지 않겠느냐고요.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걱정부터 앞섰어요. 제가 나이도 있고, 한국에서도 계속 직장만 다녔는데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저희 딸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딸이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는데, 작년부터 제가 공부나 학교생활에 관해 아이와 나눌 수 있는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집에서도 아이가 아파하고 오늘 영어 공부가 어땠어, 수학은 어땠어 하고 대화하는데 저는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 답답하고 슬펐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도 아이를 위해서, 앞으로의 내 인생을 위해서 도전해 봐야겠다 마음먹었어요. 아이와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Q. …… 초등 검정고시 준비가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공부를 시작할 때는 수학하고 영어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한국의 수학 교과 과정과 베트남의 수학 교과 과정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막상 공부해 보니 수학하고 영어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강사 선생님께서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원리를 이해하니까 문제 풀이도 잘 됐어요.

가장 어려운 과목은 국어예요. 읽고 이해해서 풀어야 할 지문이 많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국어 공부를 하는 동안 한국 사회에 관해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Q. …… 초등 검정고시 합격 후 무엇이 가장 달라졌나요?

공부를 하기 전에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불안한 게 있었어요. 문화가 다르고 모르는 것이 많아 실수할까봐 항상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초등 검정고시에 합격하며 한국 생활과 문화를 많이 알게 되었고, 한국의 의사소통법도 어느 정도는 익히게 되었어요. 지금은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요. 누구를 만나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더는 수줍어하지도 않아요. 대인관계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Q. …… 올해 3월부터 곡성군가족센터에서 다문화이해강사로 활동하시게 되셨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나요?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베트남의 문화와 생활에 관해 알려드리며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는 일이에요.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베트남에 관해 알려주기도 하고요. 요즘 베트남 여행을 가는 한국 분들이 많아져서 관심이 꽤 높은 것 같아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이주여성들과 상담하고 고충을 들어주는 역할도 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비슷하게 겪고 있을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어드리는 거지요. 이제 막 시작한 일이지만, 곡성군가족센터에 들어와 일하게 된 게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 제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면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Q. …… 중등 검정고시에도 도전하실 건가요?

네, 다문화이해강사 일을 열심히 하면서 중등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있어요. 초등 검정고시보다 난이도가 확 올라가서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하려고 해요. 아이도 점점 자라면서 곧 중학생이 되니까 제가 먼저 공부해서 아이에게 도움도 되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꿈이 더 있어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의료원에서 도우미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의료원에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멋있어서 간호조무사가 되고 싶다고 바랐어요. 당시에는 그냥 접을 수밖에 없었던 꿈이었지만 이제 그 꿈을 다시 펼쳐보려고 해요.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대학까지 나와야 하니까, 중등, 고등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도 꼭 가려고 해요.

Q. .... 검정고시 시험을 망설이는 다른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처음 초등 검정고시를 볼까 망설이고 있을 때, 저보다 먼저 다문화이해강사를 하고 있던 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 한 번 도전해 보자, 희망을 갖고 되든지 안 되든지 끝까지 해 보자.”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저처럼 한국에서 살며 여러 이유로 공부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어요.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꼭 도전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고요.



स्वागत

Maligayang Pagdating

ДОБРО ПО ЖАЛОВАТЬ Selamat datang

ຍິນດີຕ້ອນຮັບ ТАВТАҢ МОРИЛНО УУ

Mirësevini ຫຼືຍອຍູປາ Welcome

Хуш Келибсиз

សូមស្វាគមន៍

みなさんようこそ \*Hân hânhdóntiép~

ຍິນດີຕ້ອນຮັບທ່ານ ทุกท่าน

欢迎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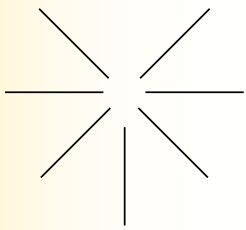
4.

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강화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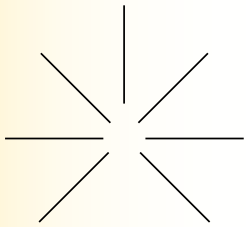
자녀진로지원 사업 우수사례

서정자  
선영각





최우수상  
최우수상



# 강한 열망과 마주할 때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것들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인숙

운영프로그램

컴퓨터

## 산촌에서 컴퓨터 교육이라고?

영양군은 봉화군, 울진군, 영덕군, 안동시, 청송군에 둘러싸인 내륙 지역입니다. 청정 자연 지역이긴 하지만 인구 1만 3천 명에 그나마도 감소 추세이고 대부분이 농업과 약초 재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양군 결혼이민자 수는 152명이며, 배우자와 평균 나이 차이가 16살 이상인 가정이 49%나 됩니다. 남편의 정년으로 생계유지를 결혼이민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가정이 많아지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은 취업의 욕구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식당 시간제 근무나 단순 노무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이민자에게 컴퓨터 교육은 정보를 찾고 고르고 선택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전문성 있는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줍니다. 이들의 사회 진출은 인구가 줄고 있는 영양군의 산업 경제에도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제가 결혼이민자 컴퓨터 교육을 시작하게 된 건 바로 이민자들의 자립역량강화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이곳에는 컴퓨터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없고, 10년 전 마지막 컴퓨터 학원이 문을 닫은 이후 컴퓨터를 배울 만한 곳도 없어졌습니다.

## 단기간에 얻은 눈부신 성과

영양군 결혼이민자들은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느 정도 소통만 할 수 있게 되면 식당이나 밭으로 일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이 쉽지 않았습니다. 영양군청 우리소식지에 홍보 기사를 실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현수막 걸고, 센터 밴드 활용해 프로그램 안내를 발송하고, 나중에는 유선전화로 교육에 참여해 달라 독려하며 그야말로 눈물 겨운 홍보 활동을 벌여야 했습니다.

1차년도 수요 조사에서 농한기에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하여 11월부터 지역에 정보화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강사를 섭외하여 결혼이민자 각 10명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 두 차례 센터 교육장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보기술자격(ITQ) 시험은 실기시험으로만 자격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1차년도에는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수업을 하였고 2차년도에는 인터넷, 포토샵, 스마트스토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단기간이라도 시일 내에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2차년도에는 농번기와 코로나로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수업에 나올 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래도 컴퓨터 수업만큼은 열의가 높아서 다행이었습니다.

## 이제는 어엿한 스마트스토어 운영자

1, 2차년도 컴퓨터 교육을 마치고 ITQ 한글에서 5명, 파워포인트 6명, 엑셀 4명, 인터넷 3명, 포토샵에서 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5개 자격증 모두 취득한 결혼이민자도 2명이나 되었으니 정말 큰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실시하는 I-TOP 경진대회에도 참가하여 한 분이 그래픽 부문 KPC 경북북부지역센터장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섯 분이 스마트스토어에 온라인 창업을 한 개인사업자가 되어 사과, 고추 등 직접 기른 농작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높일 수 있게끔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목표 연인원 500명, 참여 연인원 437명, 참여율 87%, 2차년도 계획연인원 360명, 참여자 연인원 297명, 참여율 82%. 참여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6점이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만족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 아닐까 합니다.

## 전문직 강사로 채용되는 날까지

강사 한 명이 컴퓨터가 서툰 결혼이민자 열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담당자인 저는 기본 업무에 수업 보조 역할까지 해야 했기에 업무가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자격증에서 모두 A를 취득한 결혼이민자를 컴퓨터 교육 보조강사로 채용하여 전년도의 어려움을 해결하였습니다. 영양군에서 실시하는 지역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로 6개월 취직하게 하였기에 사업목적에 부합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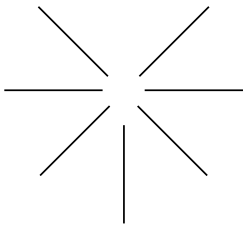
사실 ITQ 자격증을 취득한다 해도 영양군에서 컴퓨터 강사로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컴퓨터 강사를 채용한다는 유관 공고가 있어 우수한 성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응시하게 하여 면접을 보게 했지만,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한 강사로 채용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꼭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교수법을 추가해 볼 생각입니다. 전문직에 종사할 만큼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의 남은 과제입니다.

## 왜 전문직이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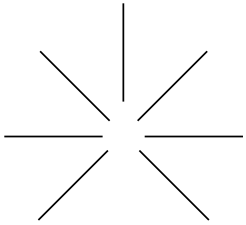
컴퓨터 교육을 하면서 결혼이민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우였습니다. 포토샵 2급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포토샵 1급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과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 의지를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편의 제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가정에 컴퓨터가 없는 결혼이민자 분들이 언제든지 컴퓨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센터 교육장을 상시 개방하였고 자격시험 응시자 분들을 시험장까지 태워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교육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돌봄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의 컴퓨터 수준이 서로 달라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했는데, 우수성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를 보조강사로 활용하면서 이분들의 전문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왜 전문직에 종사해야 하는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이 사업의 차별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I-TOP 전국대회에 참여해 봄으로써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앞으로 더 나아가려는 도전 정신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년 동안 컴퓨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수업이 있는 날은 다른 업무는 뒤로 미루고 수업에 동참하여 가르치는 일을 함께해야 했기에 업무에 부담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높은 단계를 향해 강한 열의를 보일 때 저 역시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었고, 무엇이든지 해 주고 싶었습니다. 10년 동안 다문화센터에 근무하며 수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이처럼 열의를 가지고 진행한 적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결혼이민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뻐할 때는 제 가족의 일처럼 기뻐고, 그만큼 자부심 또한 큼니다.



이웃사랑  
T T O



# 모든 가족들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해

나주시가족센터  
노무라 나오미

운영프로그램  
검정고시, 컴퓨터, 진로지원, 장학금

## 결혼이민자가 결혼이민자에게

저는 2001년도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온 결혼이민자입니다. 아이들 네 명을 키우면서, 또 구직활동을 하면서 결혼이민자로 한국에서 생활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2015년 센터에 입사했고 주로 다문화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맡아 왔습니다. 저부터가 결혼이민자로서 저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고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1년 6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강화 및 자녀진로 지원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해마다 나주시가족센터에서 기획하고 시도해 보려 했으나 비용 문제, 공간 문제로 먼 훗날을 기약할 수밖에 없던 사업이었습니다. 이중 컴퓨터교육과 다문화자녀 진로 컨설팅 프로그램만은 꼭 시도해 보고 싶었습니다.

## 함께하는 일이니까 부담은 덜어내고

컴퓨터 활용 교육은 매년 이용자 분들이 희망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취업하기 전에 자부담으로 컴퓨터 학원에 등록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경험이 꼭 필요한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센터에 컴퓨터실이 없어 늘 아쉬웠습니다.

진로 컨설팅은 제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정보가 부족해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아이들 일이다 보니 정말로 절실했지만 당시 저는 센터 내에서 사례관리사로 보직 변경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공모사업을 맡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이주여성의 자립역량과 다문화자녀 진로지원의 고충과 그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부담은 댔지만 큰 용기를 내어 보았습니다.

막상 사업을 시작하니 센터 선생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문서를 잘 다루는 선생님께서 맡아 보완해 주셨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원 및 강사 섭외는 나주 지역 자원을 잘 아는 선생님께서 정보를 수집해 주셨습니다. 참여자 모집은 통번역 선생님들께서 발 벗고 나서주셨습니다. 저는 사업 담당자일 뿐 우리가 다 함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홍보를 위해 먼저 계첩 현수막을 제작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요즘에는 SNS가 필수라 결혼이주여성들이 특히 잘 사용하는 페이스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사업 전담 인력으로는 사업의 취지와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자와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청소년을 선발하였습니다. 나주시가족센터는 다른 지역 센터보다 결혼이주여성 직원이 많은 편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참여자 분들의 동기 부여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아직 남겨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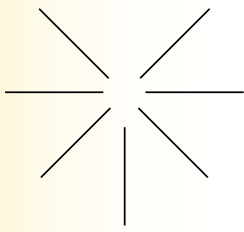
저희 센터는 2017년부터 초등 검정고시 과정을 1년에 두 차례 꾸준히 진행해 왔고, 초등 과정 누적 합격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초등 검정고시 합격자 중 중학교 과정을 기다리는 이용자들을 위해 중학교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원래 절실한 욕구가 있던 분들이라 참여자 대부분이 합격하였고 그중 스스로 고등과정에 응시하여 합격하신 분도 있습니다.

컴퓨터활용 교육은 한국에 온 지 10년이 안 되는 분들이 참여하였는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이 많아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참여자끼리 서로 알려주면서 함께 배우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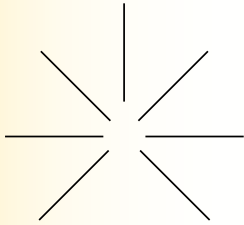
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 강화라는 제목 그대로 1차년도 사업 참여자 중 센터 종사자로 취업에 성공하거나 요양병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로 취업에 성공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방향성이나 센터의 목표, 의지를 실무자에게 더 잘 전달해야 한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자들 사이 정보 교류가 더 원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점별 사업설명회를 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센터와 프로그램별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아낌없이 도와주신 덕분에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자녀들이 이 사업에서 큰 혜택을 입었습니다. 사실 더 이상 바라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과 차별성을 두고 싶어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보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청소년들이 성장해서 취업하고 자립해야 할 시기가 왔을 때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심화 컨설팅에 포함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업에서 실시하는 인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청년 대상 주택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보를 수집해서 공유해 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저희 센터는 3차년도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꾸준히 지원해 주시는 포스코1%나눔재단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수상  
TTONG



# 엄마와 자녀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장학 사업을 꿈꾸며

무안군가족센터  
박미숙

운영프로그램  
진로지원, 장학금

## 결혼이주 배경이 장점이 될 수 있다면?

1차년 공모사업 공고안을 받아들이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공모사업의 매력은 사업 결과에 대한 예측, 기대가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것 아닐까?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배경이 장점이 될 수 있고, 삶의 자원이 될 수도 있다고 느끼게 되면 진취적으로 삶을 계획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국 생활에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 성취 수준을 높여가며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할 여러 동기들이 한군데로 모여들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보고 싶다는 의지가 솟았습니다.

## 더 넓은 직업 세계를 만드는 것

2021년 1차년 공모사업은 자녀 진로지원과 장학금 지원이었습니다. 진로지원은 센터 결혼이주여성 자녀로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까닭에 아쉽게도 1차년으로 마감해야 했습니다.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장학생 발탁을 거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담한 결과에 사업 담당자로서 내적, 외적으로 책임감과 자책에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신청 자격에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반성과 함께 담당자로서 더 책임감 있게 사업을 운영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1년 진로지원 사업에서는 홀랜드 진로탐색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다문화가정 자녀가 좋아하는 활동, 관심 있는 직업, 자신감 있는 분야 등을 측정하여 가장 흥미 있고 적합한 직업을 안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종류의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이들은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꿈꾸며 자기 주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이들이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가 되는 교육과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었다는 데 의의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진정성 있는 멘토링이 불러온 효과

2022년 장학금 지원 사업에서는 1:1 멘토링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비밀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멘티 학생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친구 관계에 대해 장학생으로 선정된 멘토 학생이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멘토 학생은 멘토링 활동 후 자세한 내용을 적어 저희 센터에 메일을 보내주었습니다. 중학생인 멘티 학생 하나가 멘토 형의 진정성과 자신을 존중해 주는 태도에 감명을 받아 “좋은 형이었어요.” 하는 메시지를 저희에게 전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장학금 지원 사업 멘토링은 8회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한 회가 추가되어 9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멘토는 활동을 끝낸 회기마다 두세 컷의 사진과 활동 내용을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두 학생 모두 성실하게 활동하였으며, 비슷한 환경의 형과 동생이 진솔하게 자신의 내면을 내보여 준 멋진 활동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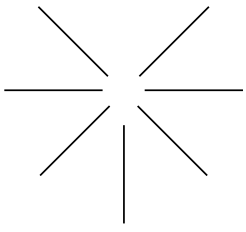
멘토링 활동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멘토링 활동 장소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멘토링이 주로 카페에서 이루어졌기에 사업 초기에는 장난처럼 시간을 보내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카페나 햄버거 전문점이 멘토링 활동에 결코 좋은 환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군 단위의 농촌에서는 일요일에 스터디카페나 도서관에서 멘토링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3차년 사업에서는 이 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더 깊이 고민해 보려 합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의 지원으로 멘토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멘티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선배에게서 정서적 안정을 느끼고 감정 조절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감 능력과 사회적 역량이 향상되어 가족과 학교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멘토링 활동 9회기 모두 성실하게 활동한 멘토는 자기 만족감이 향상되고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자존감을 갖고서 꾸준히 자기 역량을 강화해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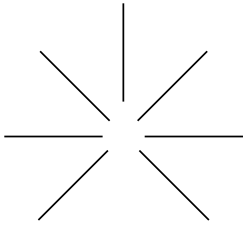
## 엄마에게도 고등 학습 기회를!

저는 이제 3차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장학금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 꾸준히 홍보하며 꽤 많은 정보를 쌓아 왔습니다. 센터 장학금 수여식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는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를 보며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보람을 찾았고,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포스코 공모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담당자인 저 자신이 아닐까 합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새롭게 생긴 아주 큰 바람이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원하며 동시에 결혼이주여성에게도 자녀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양육자가 먼저 공부하고 익히는 것보다 자녀 성장에 더 도움 되는 일이 있을까요? 농공단지, 논밭에 가서 일하는 시간을 조금만 늦출 수 있게 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이런 장학금 지원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가치 있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부듯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려상  
영려상



# 다양성을 갖춘 인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양구가족센터

김영주

운영프로그램

검정고시

여기 다양성을 갖춘  
인재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정말 긴 시간이 소요되기에 결혼이주여성은 저학력으로도 취업 활동이 가능한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직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검정고시 취득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온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역량 강화는 한국사회가 다양성을 갖춘 인재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업은 2014년에 시작되었고, 2015년 첫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2020년도까지 총 530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이 사업에 참여하여 초등학교 졸업 110명, 중학교 졸업 80명, 고등학교 졸업 57명, 총 327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합격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핵심은 센터들의  
공동 점검과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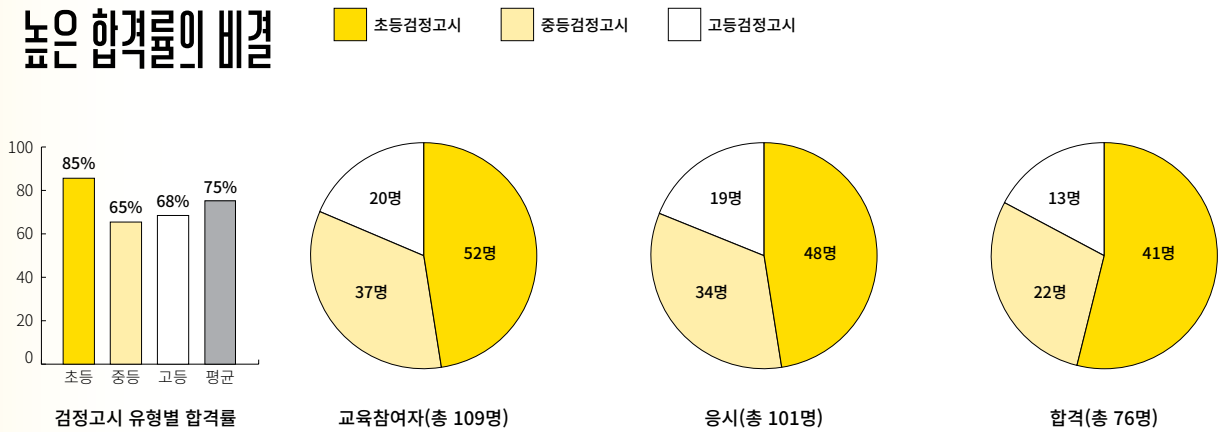
그간 운영 실적과 노하우가 있으니 포스코1%나눔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에 결혼이주여성 대상 검정고시 과정을 운영하는 데 저희 센터가 적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수료한 결혼이주여성을 모집 대상으로 삼았고, 이들의 학력 신장을 돕기 위해 인천시 관내 가족센터들에 사업 참여 의사를 물었습니다. 센터별로 중복 과정이 없도록



연간 운영 과정을 계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각 센터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대비하여 온오프라인 교육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교육 과정별 출석률 7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참여자를 독려하며 출결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먼저 참여자별 자기효능감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이 사업의 효과를 예측해 보았고, 사업을 마치면 교육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기반을 더 갖춰야 할지 만족도를 조사하고 소감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쌓인 데이터는 다음 해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반영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무리 행사는 검정고시 합격자 졸업식이었습니다. 졸업식은 그동안의 수고와 열정을 격려하고 앞으로 있을 더 큰 도전을 응원하는 장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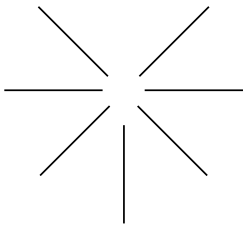
## 높은 합격률의 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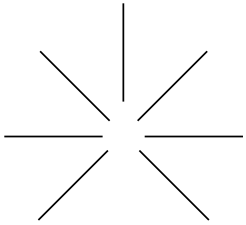
코로나로 대면 교육이 불가능해 온라인 수업이 주가 되었는데, 출결 관리가 취약한 상황에서도 교육 신청 인원 대비 출석률이 70%를 웃돕니다. 참여자 비율은 무려 98%이고, 사업 총 참여 인원 109명 중 76명이 합격하여(중복합격 인원 포함) 합격률 75%의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코로나 3년을 겪고 나자 참여자들이 비대면에 익숙해져 대면 교육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기효능감 검사 결과도 사전 3.38점에서 사후 4.10점으로 14.4%가 향상되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기효능감이 단기간에 얼마나 높아졌는지 금세 눈에 들어옵니다. 더불어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다 보니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도 함께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학력 신장을 이루어 더 활발하게 사회에 진출할수록 자녀 양육의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고등과정을 합격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취업과 대학 진학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인천광역시 전 센터 합동 졸업식은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엄마, 자녀들과 함께 성장하는 엄마를 위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희가 목격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아 성취감과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는 센터 직원들의 보람 가득한 얼굴입니다.



상  
관  
영  
영



# 컴퓨터는 전문직 인식의 공감대입니다

화순군가족센터  
김종식

운영프로그램  
컴퓨터, 진로지원

## 전문직 꿈을 이루는 입문 과정, 컴퓨터

제가 맡고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컴퓨터 실무 능력이 안 되어 취업을 포기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일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진로지원을 하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혼이주여성들은 컴퓨터 자격증을 따고도 다시 어렵게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필요한 자격증을 더 취득합니다. 이런 난관이 길어지다 보면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미래를 그려보던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칫 꿈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저희 센터는 그분들이 계속 꿈꿀 수 있도록 컴퓨터 ITQ 자격증 취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 역량을 월등히 높여 전문적인 직업에 다시 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경제적으로 보다 안정되게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컴퓨터 활용 기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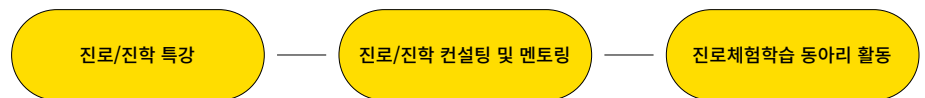
ITQ 한글 자격증반

ITQ 엑셀 자격증반

컴퓨터 교육 실인원은 총 22명, 연인원 총 781명, 90회기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3명이 ITQ 한글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5명이 ITQ 엑셀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 직업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진로가 보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은 기초기본 학습 능력과 성취도가 낮은 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다른 두 문화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자세와 학습에 열정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들이 자기 진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저희와 함께 체계적인 방법으로 직업의 세계를 탐구하며 직업을 얻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배워 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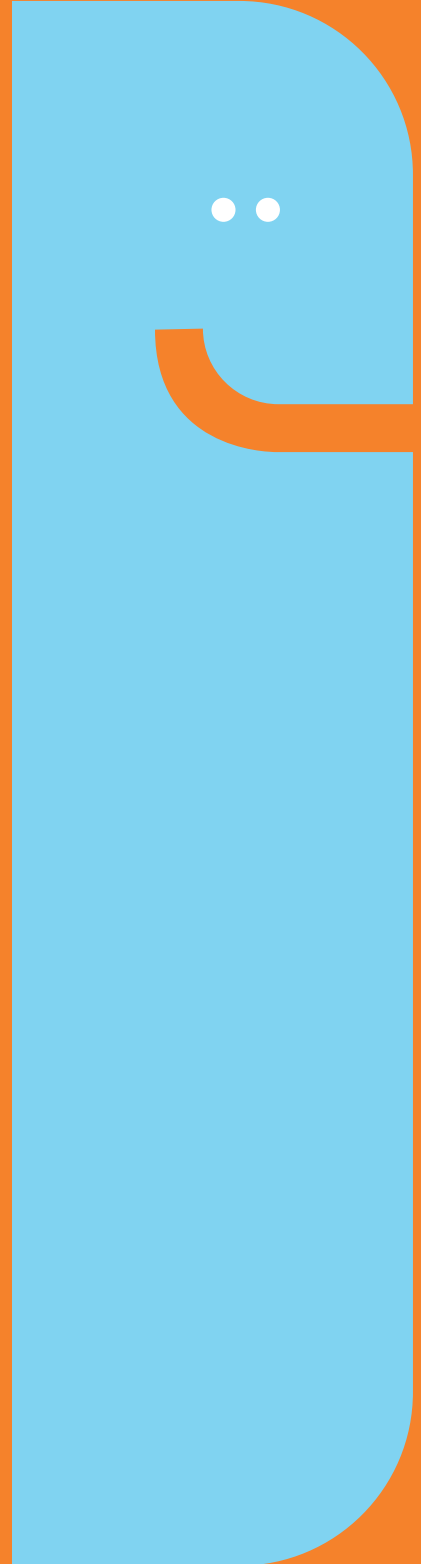
진로지원 실인원은 총 16명이었고, 연인원 총 166명, 모두 80회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진로지원 사업으로 예술고를 비롯하여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성적이 향상되거나 개인 성향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꾸준히 이어져야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해 나가기 쉽습니다. 화순군가족센터가 <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강화 및 자녀진로지원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 가장 도움이 된 것도 바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였습니다. 저희는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자부합니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차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포스코1%나눔재단, 많은 도움을 주신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

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강화 및  
자녀진로지원 사업  
최우수 사업수행기관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인숙 담당자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맹임숙 팀장







Q. .... 영양군은 어떤 지역인가요?

맹임숙 팀장 ..... 영양군은 전형적인 농산촌 지역이에요. 농공단지, 공업단지가 전혀 없어요. 청정지역으로 별 관찰이 유명하고, 대표적인 생산품은 고추예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년에 한 번씩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Q. .... 결혼이주여성 분들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맹임숙 팀장 ..... 현재 영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는 145명입니다. 베트남 결혼 이민자가 120명으로 70%를 넘고요. 이외 중국,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등 11개국 결혼이주여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영양군에 처음 온 결혼 이민자는 중국 분들이었는데 센터가 개소하기 전이라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센터 개소 이후에는 베트남 분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저희 센터를 통한 밴드 모임이나 개인 SNS, 국적별 모임이 형성되어

있고, 영양군 다문화가정연합회라는 자조 모임 안에서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 자발적으로 새로 오신 분들이 센터에 찾아와 등록하게끔 안내되고 있어요. 지역이 좁다 보니 이런 이점이 있네요.

**Q. …… 농산촌 지역인데 컴퓨터 교육에 중점을 두신 이유가 있나요?**

유인숙 담당자 …… 10년 전 컴퓨터 학원이 문을 닫은 이후 영양군에는 컴퓨터를 배울 곳이 없어요. 신규 결혼 이민자들은 입국해서 한 달 정도 지나 어느 정도 소통이 되면 바로 일을 하러 나가요. 한국어 수업에는 안 나오고 식당이나 고추 농사 같은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 이곳 생활에 적응하게 되면 사무직이라든가 좀 더 전문성을 요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컴퓨터 교육이 기초가 되어야 해요. 요새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차년도에 기본적인 문서 작성이나 ITQ 자격증 교육을 진행했고, 2차년도에는 인터넷 검색, 스마트스토어 같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스토어를 열고 남편이 기른 사과를 판매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 큰 소득은 올리지 못했지만 사진, 영상으로 홍보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Q. …… 강사 인력이 부족해 무척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유인숙 담당자 …… 네, 1차년도 컴퓨터 교육을 시작할 때 강사 한 명이 교육생 열 명을 책임져야 했어요. 그런데 다들 타자조차 쳐 보지 못한 분들이라 한 분 한 분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웠지요. 그래서 담당자인 제가 수업에 들어가서 보조를 해야 했어요.

컴퓨터를 대여해서 교육장에 설치했는데, 교육생 중에서 열의가 있는 분들이 수업시간 이외에도 찾아와 개인적으로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업무를 못하고 그분들에게 매달려 있어야 했지요. 연습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계속 질문을 했으니까요.

왕평쉬에 씨는 막 돌 지난 아기 엄마였어요. 추운 겨울에도 유모차를 끌고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 공부를 했어요. 교육장은 좁고 아기 돌보기가 힘이 드니까 언어 발달 교실에 앉아 공부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ITQ 한글, 파워포인트, 포토샵, 이렇게 자격증을 세 개나 취득했어요.

Q. .... 아기를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으니 돌봄도 신경 쓰셔야 했겠네요?

유인숙 담당자 ..... 영양군에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란 게 있어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공공근로로 돌봄을 맡아 주실 두 분이 배치돼요. 군 사업과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요. 돌봄 시간과 맞지 않을 때는 제가 육아 정보 나눔터 방으로 데려가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Q. ....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영양군에서 얻을 만한 전문직에는 어떤 게 있나요?

맹임숙 팀장 ..... 사실 지금 영양군에는 취업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저희는 초등학교, 교육청에서 다문화강사나 컴퓨터 강사가 필요할 날을 대비해 미리 역량을 갖춰 놓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도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예요. 우선은 1차년도에 자격증을 딴 분들을 2차년도에 보조강사로 활용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에 추천을 하고 있어요.

Q. .... 언젠가는 꼭 해 보고 싶은 사업이 있으신가요?

맹임숙 팀장 ..... 도시 같으면 모집 인원이 500명, 1천 명 단위까지 가겠지만 저희는 참여자 모집이 어려워요. 활동하는 층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강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고 싶어요. 강사 양성반은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영양군 전체에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초등학생과 노인들도 교육 대상자가 되니까요.

유인숙 담당자 ..... 지금까지 ITQ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포토샵, 인터넷 자격증 수업을 다 했고, 이제 남은 한 개가 액세스예요. 올해는 그걸 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올리는 거라든가 메타버스 교육도 해보고 싶고요.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스마트스토어라든가, 개인사업자가 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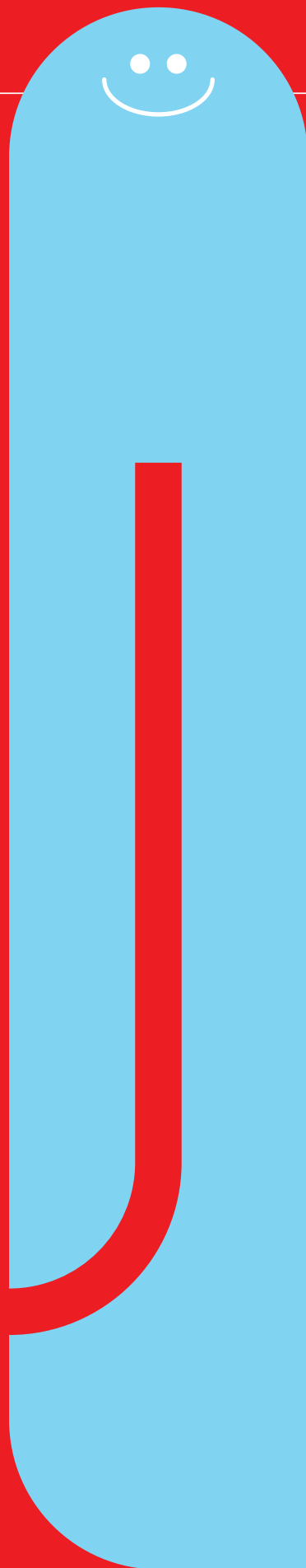


# 6.

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강화 및

자녀진로지원 사업

우수강사



# 검정고시, 느려도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다한다면

이지현 (검정고시 국어강사)

저는 원래 재학생들이 교과 성적을 높이기 위해 다니는 ‘내신 대비’ 학원에서 20년 가까이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야간 제한 시간이 있어서 늦게까지 수업을 못하지만 예전에는 새벽 1시든 2시든 학생만 있다면 밤을 새워서 수업을 했던 때라 퇴근 시간은 빨라야 밤 12시였지요. 당연히 9 to 6라는 보통의 일상은 꿈도 못 꾸었는데 결혼 전까지는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직을 결심했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결국 선택한 것이 검정고시 학원이었습니다.

## 검정고시란?

검정고시는 학교 교육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정이 있어 자퇴하거나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여 쉽게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다른 시험에 비해 문제 난이도가 낮은 편입니다. 초졸과 중졸은 기초적인 공부만으로도 쉽게 합격이 가능하고, 고졸은 ‘국민공통기본교과과정(고1)’까지를 시험 범위로 하고 있어 초중졸보다는 어렵지만 수능이나 내신 관리 공부와는 달리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에 응용하여 풀 수 있는 정도의 학습이 요구됩니다.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검정고시라지만 가르치는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오랫동안 내신 학원에서 근무했던 저는 오히려 이 두 가지 때문에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 중 하나가 ‘적당히’가 아닐까요? ‘적당한 난이도’를 찾는 것은 학습 난이도가 쉬운 것과는 별개의 문제더군요. 몇 년 차 기출문제를 모조리 풀어 본 후에야 겨우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 성별, 나이, 환경 등 다 다른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대해야 하기 때문에 단어 선택이나 표현에 있어 조심할 부분들이 많았고 지금도 늘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 작은 성공의 경험, 가능성의 경험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안정적으로 새로운 직장에 적응을 하고 나름 검정고시 학원에서 연차가 쌓여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검정고시 학원에서 새로 개설되는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검정고시 대비반을 맡아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의 바르게 동의를 구하는 의문형 문장이었지만 사실상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통보나 마찬가지였지요. 저는 당황한 눈빛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내보이며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이라니, 그것도 국적마저 다 다른 사람들인데, 검정고시가 아무리 쉽다고 해도 그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할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해도 공부는 또 다른 문제인데, 여러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갔습니다. 복잡한 제 심정과 달리 원장님은 “한국인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말 한마디로 다독이며 간단하게 일을 확정 지어 버렸습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학력 취득 과정과의 인연은 이렇게 급작스럽고 당황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수업이든 첫 수업에 들어갈 때는 아직도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지지만 처음 결혼이주여성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는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 위에는 여전히 여러 개의 물음표들이 띄워져 있었지요. 그러나 저의 의구심들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마냥 낯설 것만 같았던 그들의 얼굴이 왠지 친숙했고 환하게 웃는 밝은 표정은 신선했습니다. 머리 위 물음표들이 차례로 꺼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거기다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주부로서의 동지애 같은 것도 느껴졌고요. 결혼이주여성들과의 수업은 요즘 말로 저의 ‘최애’가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지식을 전달하지만 그분들은 저에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삶의 깨달음을 되새겨 줍니다. 그중 하나가 가능성의 경험에 삶에 얼마나 큰 의지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하려면 여러 증빙 자료가 필요한데 출신국에서 자료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나라마다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학력이 어떠한 아예 초졸 시험부터 응시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초졸 과정부터 시작하는 걸 권하는 편인데 내용 학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습에 필요한 용어들이나 표현을 공부해 놓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어를 잘한다 해도 모국어가 아닌 이상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표현은 배우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되도록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풀어서 설명하지만 ‘신선’, ‘선녀’ 같은 단어는 사실 아직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생각 외로 초졸 과정 초창기에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초졸도 이렇게 공부할 게 많은데 중졸, 고졸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용어 학습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울 거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한번 자신감을 잃고 나면 어떤 만류도 통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그 과정들을 이겨내고 중졸이나 고졸 과정으로 올라가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는데도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무언가를 해냈다는 기쁨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번에도 해내 보겠다는 의지를 키워 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 느려도 정성을 다하면

검정고시는 4월과 8월, 일 년에 두 번 시험이 있고, 만약 4월에 초졸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게 되면 8월에 중졸 과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졸부터 시작해서 고졸까지 합격하려면 최소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과정을 잘 넘기고 새로운 길을 찾아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재수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집안일을 해 가면서 하는 공부이니 고졸 과정을 한 번에 합격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오랫동안 재수강을 하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번에도 수업에 참여 한다면 4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베트남 출신으로 잘 웃고 수줍음이 많은 성격인데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심한 편입니다. 평상시에는 조곤조곤 말도 잘하지만 구술시험을 보다 한마디도 못하고 울면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나마 초등 검정고시는 구술시험은 없기 때문에 초졸 과정은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문제는 중등 시험부터였습니다. 첫 시험은 심한 압박감 때문에 불참했고 두 번째 시험은 안타깝게도 불합격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보러 갈 때는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느님, 부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까지 했는데 코로나로 대면 수업이 없어지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터라 한동안 소식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지역 선생님께서 그 사이 아기를 낳았고, 아이를 안고 고졸 수업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중등 과정에 합격했다는 것, 그리고 저출산 시대에 인구 증가에 이바지 했다는 것, 무엇보다 다자녀 육아에 바쁘면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크게 감동했지요. 느려도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다한다면 언젠가는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도착 시간이 조금만 더 앞당겨지기를, 너무 힘들지 않기를, 결승점을 코앞에 두고 포기하지 않기를, 그리고 도착한 어느 날에 마음껏 기뻐하기를 바랐지요.

## 결혼이주여성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한 이유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없어 곤란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정고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 질문에 대답을 해 줄 수 있어서 기뻐했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저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가정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보다 건강히 키워 내기 위해서도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교육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아직 도전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이주여성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이 속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의 버팀목으로 더욱 든든히 서기 위해서 조금 용기를 내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는 그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컴퓨터 교육

박마리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 강사)

다문화엄마들을  
만나다

저는 2010년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 강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구글 드라이브, 구글 문서 도구를 활용한 협업과 공유, 학습(업무)에 필요한 앱 등을 가르치고 있고, 광주 평생교육진흥원, 나주 평생교육원 등 여러 평생교육 기관에서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복지관에서 처음으로 결혼이주여성들과 만난 게 2010년이니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후 나주 공공도서관, 담양 건강가족다문화가족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관련 수업을 해 왔습니다.

사실 나주시가족센터에서 컴퓨터 자격증 교육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역 여건과 계절적인 요소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주 ‘다문화 엄마학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께 나주 다문화 엄마들의 소식을 종종 전해 들으면서 결국 함께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지역별 교육 기간  
다변화가  
필요한 이유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1월 나주시가족센터 컴퓨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임 제한으로 수업이 몇 차례 휴강되기도 했지만 미리 준비한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이주여성들도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 수업에 차차 적응해 가면서 출석률도 높아지고 숙습과 복습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시험 합격률과 합격 등급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는 포스코1%나눔재단의 지원으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기초부터 자격증 과정, 동영상 제작, 유튜브 콘텐츠 생산 등 다양한 수업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오가며 이끌어 갔습니다. 하지만 처음 우려한 대로 농번기 들어 출석률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지역별로 사업 시기의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맞춤형 컴퓨터 교육이 필요한 이유

현대 사회에서 컴퓨터는 거의 모든 산업과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모든 정보를 온라인에서 얻고, 사회와의 연결, 개인과 개인의 연결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집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컴퓨터 기초지식이 필요합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런 기초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주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기 마련인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컴퓨터 교육과 자격증은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낯선 땅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정보를 얻고 지역이나 국가별 커뮤니티와 연결되면서 사회적 적응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을 때 한국인과 함께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어나 한국의 문화, 관습에 이해가 떨어지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이러한 교육 환경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만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분들이 모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문화적 차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 눈높이 영상과 자막 제작의 필요성

나주시가족센터 교육장에서는 주 1-2회, 회당 2시간씩 교육을 하였습니다. 각 회차당 교육생은 10명에서 15명 내외였고, 교육장에 컴퓨터가 갖춰져 있지 않아 노트북을 대여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 환경이 달라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육생들이 이내 잘 극복해 냈습니다.

컴퓨터 기초와 인터넷 검색, 엑셀, 한글 자격증, 동영상 제작 및 유튜브 채널 만들기, 동영상 업로드 등의 수업을 진행했는데, 교육과정에 컴퓨터 기초와 검색, 문서작성 기초 시간을 늘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강사와의 소통이 컴퓨터 용어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일단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추후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방식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교육생들을 위해서는 눈높이에 맞는 동영상 제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육 동영상은 수업과 별개로 스튜디오 따로 제작되면 열린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실시간 녹화하여 업로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영상 수업이 지루하지 않고, 학습하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볼 수 있어 교육장에서 강의를 듣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눈높이 영상이 제대로 완성되려면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 나라별로 자막을 넣어야 하는데, 이는 교육자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필요한 것

세 살 아기를 데리고 수업에 참여하던 교육생이 있습니다. 아기가 너무 낮을 가리는 탓에 항상 아기를 안고 수업을 들어야 했는데, 아기가 아파서 결석해야 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업을 들었고 결국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지원 사업에서는 반드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합니다.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자격증 과정입니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걱정할 게 없지만, 시간 제약이 있는 경우 기초과정을 무시하고 주입식 교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강사가 말하는 내용의 30% 정도를 이해하면서 화면에 집중하며 교육에 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초교육에 지금보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만 사업의 성과도, 교육생 개인의 성취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진로상담은 잠재성을 현실로 만듭니다

이창선 (서울진로상담연구소 소장)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진로상담연구소 이창선 소장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나 항상 고민하는 것이 '진로'일 것입니다. 젊은 연구자 약 300명에게 인간의 수명이 몇 살까지 늘어날 것인가 물으니 '150세'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노화 억제, 장기 교환, IoT 기술과 의료 기기 발전으로 2050년 무렵에는 인류가 점차 불로장생에 다가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수명이 늘어난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적성을 찾아주는 일이 바로 저희 연구소가 하는 일입니다.

## 진로검사의 유형

적성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진로검사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검사는 능력(지능)검사입니다. 어떤 영역에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지 찾아보는데, 시간제한이 있는 검사입니다. 인문계열(어문/인문), 사회과학계열(사회과학, 법정, 경상), 공학계열(IT계열/수학, 기계공학/건축, 공학계열), 보건/의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중 가장 능력이 좋은 계열을 탐색합니다.

두 번째 검사는 학습검사입니다. 능력은 괜찮은데 학습 전략이 다소 부족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효능감이 부족하거나 정서 특성(짜증, 불안, 우울)이 있거나, 시간 관리나 집중 전략 등이 부족해서 가진 능력에 비해 성적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자 부모는 한국인 부모에 비해 교육 정보가 부족한 편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에 관한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전략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검사는 심리검사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는 심리적으로 '대인 관계', '부모와의 관계' 영역에서 평가가 낮거나 '불안, 우울' 영역에서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에 전라남도교육청과 함께 직업계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매뉴얼 연구를 진행했는데, 심리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은 이후에 학습과 진로를

탐색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리검사를 통해서 학생의 어려움을 우선 파악하고 가족센터의 심리 상담 선생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네 번째 검사는 성격검사입니다.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성격 유형이 무엇이고 어떤 진로와 잘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BTI 검사를 실시하는데, 요즘 사회 분위기상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검사는 진로검사로, 어떤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어 하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진로 탐색을 진행합니다.

## 학년별 상담 내용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이 다섯 가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국어가 다소 서투르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이 많아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과 1:1 전화 통화를 통해서 검사를 진행하도록 독려하지만,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로검사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학생 한 명이 다섯 가지 검사를 완료하고 상담 일정을 결정하기까지 스무 번 정도의 통화가 필요합니다. 밤 10시가 넘는 시각에 통화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 전날 전화와 문자로 상담 일정을 확인해도 결국 상담 당일에 연락 없이 불참하는 검사자도 있습니다.

진로상담은 되도록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진행합니다. 어머니가 임신 상태이거나 가족센터까지 오기 어려운 학생은 집으로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 중에는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중 따돌림을 받아 의기소침하고 자존감이 매우 떨어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연세가 많고 어머니는 한국어에 서툴러서 심리적인 조력자가 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진로와 진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학생 스스로 결정해야 했고요. 학교 성적도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진로를 위해 학교 선생님에게 요청해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생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로검사와 진로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현재 자기 성적과 환경에 따라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중1 학생들에게는 기초적인 학습 상황과 진로를 알려주고, 중2 학생들과는 현재 성적에 따른 고등학교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중3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선택과 직업/대학 학과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요. 고등학생의 경우 직업계고 학생들과는 취업 분야에 관해, 일반 고등학교 학생과는 대학 학과 선택과 선택 과목 결정을 중점적으로 상담합니다.

#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행복한 진로 선택을 위하여

진로상담을 하며 기숙사가 있는 조리 관련 학교 등 직업계 고등학교로 진로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학원이나 과외 등 외부의 도움 없이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데, 환경적으로 그런 지원을 받기 어렵다면, 그리고 학생도 공부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다면 직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동의를 거치고 학교 설명회도 다녀오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일반 고등학교를 보내려 하지만, 기초가 부족하고 동기부여도 없는 학생들에게는 부모와 학생 모두 힘든 진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진로 방향을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베트남 출신이고 베트남어로 대학가 가능한 학생에게 진로상담을 통해 국제통상학과를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자연스레 공립학교인 충남외국어고등학교 베트남어과에 진학했습니다.

Entelechy, ‘잠재성에 대한 현실성’이란 뜻입니다. 나팔꽃이 장미꽃이 되고 싶다고 하여 장미꽃처럼 색칠하고 모양을 바꾼다면 그것은 나팔꽃일까요, 장미꽃일까요? 아이들마다 달리 가지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과 가치관, 흥미가 현실에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으로 다소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포스코1%나눔재단이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진로를 응원합니다.



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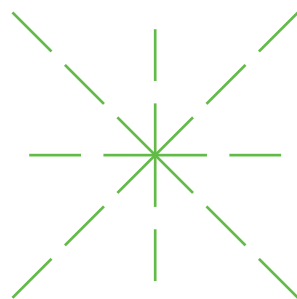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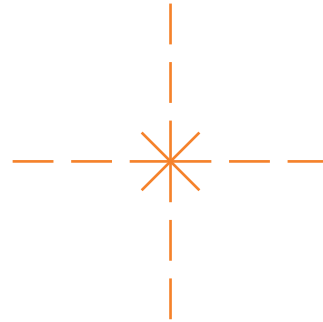
가족서비스 제공으로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질 제고

비전

모든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파트너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정책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모든 가족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나눕니다



＊  
가족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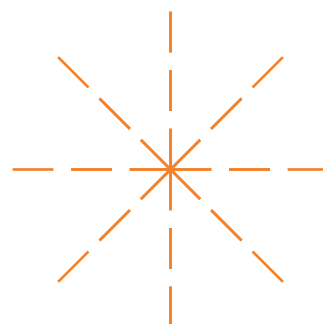
설립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 2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설립한다

연혁

- 2005. 1.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 2011. 8.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개원
- 2015.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특수법인 출범
- 2020. 2. 준정부기관 지정
- 2022. 1.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운영
- 2023. 1. 기타공공기관 재지정

＊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 \* 가족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 가족서비스 기획 및 지역센터 중앙관리·지원
- 가족서비스 전문인력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
- 가족서비스 빅데이터 구축 및 활성화
- 사회적 재난 선제적 대응 및 위기가족지원

### \*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 가족다양성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 가족다양성 편견해소 모니터링
  - 포털다누리 : [www.liveinkorea.kr](http://www.liveinkorea.kr)
  - 다누리배움터 : [www.danurischool.kr](http://www.danurischool.kr)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 기업(관)과 함께하는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
  - 가족친화지원사업 : [www.ffsb.kr](http://www.ffsb.kr)
-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운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 : [www.idolbom.go.kr](http://www.idolbom.go.kr)

### \*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나눕니다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양육비 상담 및 합의지원
  -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상담 : 1644-6621(1번 연결)

가족상담번호  
1644-6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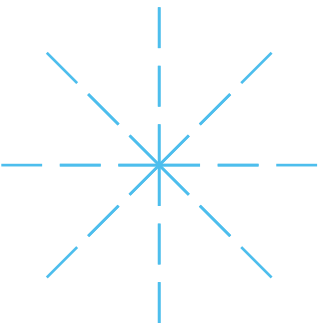
- 임신출산 갈등 상담(0번)
- 양육비 상담(1번)
- 한부모 가족상담(2번)
- 심리정서 지원 상담(3번)
- 카카오톡 채팅 상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상담전화



# 포스코 1% 나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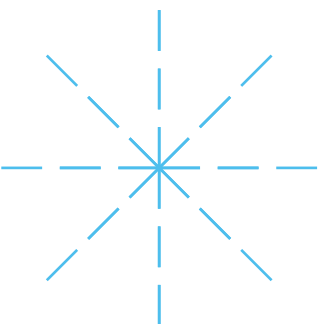
포스코1%나눔재단은 포스코그룹 및 협력사 임직원의 기부금과 회사 매칭그랜트로 운영되는 비영리재단입니다. 임직원이 기부에 참여해 준 취지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1%의 나눔’이라는 재단 비전에 따라 취약계층의 교육, 자립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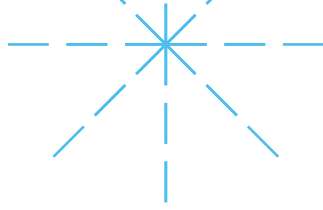
# 1%

더 나은 세상을 향한  
1%의 나눔은  
따뜻한 마음과 손길로 모여  
희망과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 \* 미래세대 자립지원



<b>1%나눔 아트스쿨</b> (한국메세나협회)	문학부터 무용, 미술 등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b>상상이상 사이언스</b> (씨드컴, 더한교육)	체험형 과학수업을 통해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과학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b>두드림</b> (한국아동복지협회)	자립준비 청년들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학업&진로 프로그램 지원(만 18~27세 청년)
<b>드림스쿨</b> (포항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양YMCA, 수파자)	포항/광양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온라인 학습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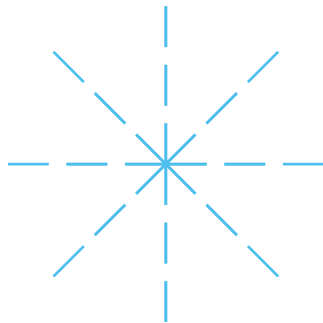


## ＊ 다문화가정 자립지원

<b>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 강화</b>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조기 적응 및 학력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및 컴퓨터 활용 교육 지원
<b>다문화가정 자녀 진로 지원</b>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진로/학업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 및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생 장학금 지급
<b>다문화 외가 방문</b>	포항/광양 內 다문화 가족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외가방문 지원

## ＊ 장애인 생활지원

<b>희망날개</b> (포항_따뜻한 동행, 광양_광양시장애인복지관)	포항/광양 지역사회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b>희망공간</b> (따뜻한 동행)	장애유형별 맞춤형 공간복지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안정 지원
<b>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b> (국가보훈처, 따뜻한 동행, 중앙보훈병원)	국가유공 상이자 대상 맞춤형 의수족 지원으로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고, 실질적인 생활자립을 지원
<b>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b>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로디지털센터, 따뜻한 동행,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국의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장애인을 선발하여 코딩 개발자 교육 후 IT기업 채용연계



## ＊ 문화예술/기타 취약계층 지원

<b>만남이 예술이 되다</b>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트레져헌터)	장애예술인의 예술적 가치를 대중화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
<b>1%마리채</b> (네이버 해피빈)	1%나눔재단 기부자가 기부처를 추천하고, 원하는 기부처에 모금하는 연말 작은 나눔 프로그램
<b>Change My Town</b> (기아대책)	기부자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아이디어 공모전



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강화 및  
자녀진로지원 사업  
우수사례집  
2021-2022

발간번호 2023-KIHF-053  
발행일 2023년 4월  
발행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발행인 김금옥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1층, 24층  
전화 (02) 3479-7600  
팩스 (02) 3479-7789  
홈페이지 [www.kihf.or.kr](http://www.kihf.or.kr)  
편집 브릭스  
디자인 studio mot  
인쇄처 새한문화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발췌하거나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